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보다 탁월한 영성은 없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스티브 맥베이 지음 | 정동섭 옮김

오정현 | 김서택 목사 추천!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대가 스티브 맥베이의 Grace Walk 드디어 재출간되다!
전 세계 40만 독자를 은혜의 감격에 잠기게 한 책!
당신이 이 책을 만나는 순간, 은혜와 기적의 삶이 시작된다!

GRACE WALK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노예의 심정을 갖고 있거나,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하면서 하나님의 미음에 들리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 책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인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김서택 (대구동부교회 담임목사)

이 책은 맥베이 목사가 수십 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바를 기도와 눈물 속에서 기록한 고백서로, 오랜 시간을 걸어도 영적인 진보가 없거나 애를 쓸수록 영적인 좌절감으로 신을 하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확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 보라.

정동섭 (기독교연구원 교수장)

복된 삶에서 우리는 삶으로!

이 책은 내가 나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맥베이 목사의 은혜로운 메시지는 나의 마음과 어깨에 올라선 거대한 짐을 가볍게 해 주었다.

무명의 독자

이 책은 노력과 열매, 그리고 재림의 약속 후에 있을 줄 아는 나에게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동계 2019

간악 영산의 여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의 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3월 15일 출간을 통해 당신을 불러온 진리에 눈뜨게 하실 것이다

Larry Hill

영양가치연구소

값 9,000원



영양

스티브 맥베이 지음 | 정동섭 옮김

영양가치연구소



스티브 맥베이(Steve Mcvey) 자음

스티브 맥베이 박사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재차 훈련 사역 단체인 '그레이스 워크 선교회(Grace Walk Ministries)'의 대표이다. 그는 또한 '그레이스 워크 컨퍼런스(Grace Walk Conferences)'의 주 강사이기도 하다. 그는 라디오 오바스턴 텔레비전 네트워크(Cornerstone Television Network)의 "그레이스 워크(Grace Walk)" 프로그램을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그의 저서 *Grace Walk, Grace Rules, Grace Land, A Divine Invitation, The Godward Gaze*(Harvest House)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 한국어, 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400,000부 이상 판매되고 있다.

E-mail: atlanta@gracewalk.org
개인홈페이지: www.gracewalk.org

정동섭 플러리

정동섭 교수는 대학에서 가정생활과 기독교상담을 강의하다가 지금은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으로서 있으면서 프리랜서 가정사역자로 활동 중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TV) 등 50여 권의 번역서와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초이선교회) 등의 저서가 있다.

이도비도 영성생활연구소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민족, 피부색, 피부색,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존귀합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정신에 근거해 모든 인간이 존귀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음으로써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탁월한 영성은 없다

스티브 맥베이 지음

정동섭 옮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탁월한 영성은 없다

지은이 · 스티브 맥베이

옮긴이 · 정동섭

개정판 1쇄 찍은날 · 2004년 10월 8일

개정판 1쇄 펴낸날 · 2004년 10월 15일

펴낸이 · 김승태

출판본부장 · 김춘태

책임편집 · 장인숙

편집 · 최지영, 박경미

디자인 · 최철관

등록번호 · 제2-1349호(1992. 3. 31)

펴낸곳 · 예영커뮤니케이션

11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유통사업부 T. (02)766-7912 F. (02)766-8934

E-mail: jeyoungsales@chol.com

출판사업부 T. (02)766-8931 F. (02)766-8934

E-mail: jeyoungedit@ch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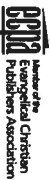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jeyoung.com

ISBN 89-8350-320-3 (03230)

값 9,000원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에영커뮤니케이션은
복음주의기독출판협회(BCPA)의 국제 회원사로서 기독교 출판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식 명령의 실현을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Grace Walk by Steve Mcvey
Copyright © 1998 by Harvest House Publishers
Eugene, Oregon 97402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4
by Jeyoung Communications Publishing House,
Seoul Korea

본 저작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Harvest House Publishers와 독점 계약한
에영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감사의 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출간되는 데 영향을 미
쳤다. 그 가운데 몇 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을 기뻐
게 생각한다. 이 책의 원고를 처음 읽고 어느 날 아침, 전화
로 열렬한 격려를 보내 주신 빌 길함(Bill Gillham) 목사님에
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목사님은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주셨다. 허버스트하우스(Harvest House) 출
판사의 밥 호킨스(Bob Hawkins, Jr)와 에이린 메이슨(Bi-
leen Mason)은 따뜻한 격려를 통하여 이 책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비전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그리고 이
책을 수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밥 웰치(Bob
Welch)였다. 그의 제안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나는 이 책

이 발이해서 만발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또한 출판 과정에서 스티브 밀러(Steve Miller)가 보여 준 주의 깊은 배려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책은 원고로 쓰이기 전부터 이미 나의 마음속에 구상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은혜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데 여러 친구들을 사용하셨다. 나는 특별히 매우 만났던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은혜로운 모임에서의 사랑과 격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 주신 모든 것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내게 심어 주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나는 특별히 엘라베마 탈라케다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사랑과 격려는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내 마음에 언제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아내 벨라나는 늘 영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보배이다. 이 사실은 책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내가 책을 쓸 수 있도록 '아빠와 함께할 시간'을 가까이 희생한 나의 자녀들 앤드류, 에이미, 테이비드, 암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 아이들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또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

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자연스럽게 진술하면서 나의 간증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셨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책으로 출판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완성시키셨다. 이 책으로 인한 모든 유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스티브 뱅케이

머리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단지 인기 있는 좋은 책(good book)이 아니다. 양서, 즉 좋은 책은 현실적인 열망에 부응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다음날에는 약간의 이야기거리가 되다가, 책장에 꽂혀 곧 잊혀진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신이 거듭거듭 다시 읽게 될 위대한 책(great book)이다. 스티브 맥베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mystery)' 중 몇 가지 모를 채굴해 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다. 그는 신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그들의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탁월한 필치로 설명하고 있다.

스티브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몇 가지 진리는 우리의 모든

8

...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력이 포기되는 바로 그 시점, 즉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했다. 여러 해 동안의 성공적인 목회를 경험케 하신 후, 하나님은 스티브의 목회에서의 생산적인 기법을 잠수함의 스크린 도어(screen door)와 같은 효과를 갖도록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초자연적 힘의 열쇠는 바로 개인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개인적인 연약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고후 12:9). 저자는 “당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진리를 우리와 나누기 위해 그의 성경적 지식과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당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도와줄 만한 강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진실은, 이 세상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켜 버리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가르치신다. 저자가 기술적으로 지적인 비와

9

...
머리말

같이, 우리가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사실 우
 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비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
 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도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
 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
 해, 전에도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이
 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실
 만으로 그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
 명이시다(골 3:1-4). 스티브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과 그
 리스도의 영이 함께 동거하면서 다정하고 친밀한 친구가 되
 어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하여 성경말씀을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다.

나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와 친근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음
 을 다해 추천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 흥미진진한 독서의 여
 정에 들어섰다.


빌 갈라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10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자 서문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Grace Walk)는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다루는 현대의 고전이다. 내가 그리
 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주
 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정체감을 따라 행
 동하며, 자아정체감을 포함하는 자아개념이 사람의 언행과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은혜를

11

역자 서문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는 율법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육체와 머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도(saint)이며,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된 존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초자연적인 신분과 정체감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다.

사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암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브 맥베이는 빌 길함과 함께 '은혜'라는

주제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대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이 책을 직접 번역할 때까지는 그 말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은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이 책은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쉬운 예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모르는 많은 이들이 구원파나 지방교회와 같은 이단에 미혹되고 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새사람이 되었고 성자(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확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그리고 이 책에서 발견한 기쁜 소식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도록 하라!

추천사

이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심지어 오래 예수를 믿는 다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지배 하에 있을 수 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노예의 심정을 가지고, 잠시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등을 후려갈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책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을 짚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으로 살게 한다.

이 책에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좋다. 우선 내용 자체가 대단히 복음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아직 복음 안에 있지 못한 모습과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체험적이며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예화들은 너무나도 생



한번도에는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있다. 하나는 자 유 민족의 정치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이다. 그런데 남과 북이 똑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도 다녀오고 또 이산가족이 무려 50여년 만에 서로 감격적으로 만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법은 우리의 영혼에도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은 상관없

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한번 읽으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은 이 책이 하나의 이론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읽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임을 맡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결코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나 이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분이 읽을 때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강사명

대구동부교회 담임목사

목차

1. 비참한 그리스도인 21
2. 새벽이 오기 전의 암흑 41
3. 완전히 새로운 나 60
4. 죽은 옛사람 79
5. 그분의 생명 경험하기 94
6.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112
7. 승리는 선물이다 129
8. 가치관의 악덕 146
9.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165
10. 의무에서 기쁨으로 186
11.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 204
12. 은혜 안에서 생활하기 226

1. 비참함 Grace Walk 그리스도인

1990년 10월 6일 새벽 1시였다. 나는 목양실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있었다. 지난 한 해는 나를 완전히 깨뜨려 상한 상태에 이르러 한 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계셨다. 나는 깨어지고 상한 절망적인 상태로 누워 있었다. 17시간 후면, 주일 저녁 설교단상에 서서 “교회의 현 상태(State of the Church Address)”를 발표해야 했다. 성공이라는 허상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진실을 그대로 말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허세를 떨 힘도 없었고,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실패를 맛보게 하려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단 말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님이 나의 최선보다 무엇을 더 기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실제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 왔다.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그분은 수십 광년이나 떨어져 계신 것만 같았다. 실패의 무개는 질식할 것처럼 나를 내리 눌렀다. 나는 목사로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는 것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것인가?

나는 엘라배마 주의 한 교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했고 인정했다.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례를 주는 교회로 교단 내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 나는 지역의 청년상공회의소로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종교 지도자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 교단 위원회에서 봉사했고, 목회자 위원회에서도 임원으로 봉사했다. 나는 적어도 5년 동안은 스스로 아주 성공적인 목사라고 자부해 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교회 교회 목회자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과 가족을 모시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이와 같은 초청을 여러 번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몇 주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우

리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아내 멜라니(Melanie)와 네 자녀와 함께 이삿짐 차를 타고 애틀랜타로 향했다. 우리가 새로 부임한 교회는 몇 년간 출석 교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모든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나는 이 교회도 틀림없이 교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들뜬 마음으로 책과 설교 자료, 교회 성장 프로그램 등이 담긴 짐 꾸러미를 풀었다. 나는 작은 동네에서 큰 도시로 이사한 만큼 복음의 손길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감동적인 설교문이 들어 있는 상자와 이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꺼내 들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나는 상황을 재점검했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으며, 다시 제 2차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일 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 성회부터 시작하여 교회 지도자들과의 전략 회의, 새로 구성된 드림팀과의 장기 계획 토의도 가졌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그 꿈은 오히려 악몽처럼 보일 뿐이었다. 새로 부임한 후, 나는 부임 1주년에 즈음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지적인 진보가 있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 교회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7년간의 목회 사역 중, 부임 첫해에 교인의 출석수가 줄어든 유일한 경우였다. 엄청난 충격으로 건담이 서늘해졌다!

사람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낄 때, 특히 성공에 많은 비중을 두는 문화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는 행안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도시의 사기꾼(City Slickers)”이라는 영화에서 빌리 크리스탈(Billy Crystal)이 연기한 미치(Mitch)라는 주인공은 그의 39번째 생일날, 친구에게 이렇게 묻는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삶을 통틀어 ‘지금’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으며,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그런 수준에 도달한 적이 있었는가?

미국 문화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한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첫걸음마를 박수치며 기뻐했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용납을 받도록 길들여졌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성공에 대한 요구는 교회 인까지 들어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보람된 삶을 살려고 고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자 마땅히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포기하며, 신앙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보다 더 많은 게 있을 텐데!
성경 교사 찰스 트럼불(Charles Trumbull)은 자신의 영적 좌절감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의 영적 생활,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나의 의식적인 접근에는 커다란 골목이 있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오르는가 하면, 어떤 때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했다. 영감이 넘치는 뜨거운 집회, 헌신된 기독교 지도자의 영혼을 흔드는 연설, 심령을 진드리는 책, 기도로 준비하고 감당하는 어려운 봉사 활동 등은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잠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의 영적 생활은 아주 값어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단 한 차례의 실패에 의해, 혹은 점진적으로 내리막길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최상의 경험은 빛을 잃고 나는 다시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다. 그 수렁은 마귀가 나에게 여러 차례 거듭해서 보여 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기에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이 이야기가 친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어쩌면 이것이 현재 당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덟 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트럼불이 자신의 신앙 경험을 기술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 이후 지난 29년 동안의 나의 경험과 거의 비슷하다. 나는 나 혼자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많은 이들이 비밀스레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분명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삶을 경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너무도 평범

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매트(Matth)는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시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성경을 더 읽어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내 시무실을 찾았고 여전히 도움을 구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진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좌절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같은 대답을 여러 번 주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다.

어느 면에서, 매트와 나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물론 나는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죄는 그의 것보다는 더 고상한 것들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롭고자 하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노예처럼 얽매어 있는 삶의 영역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승리를 누리는 열쇠를 보여 주시기 전까지, 나는 효력 없는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은 매트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영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너무도 간절히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당신에게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력을 치하하고 권장하는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포기하지 마!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봐!” 하는 말을 들면서 성장했다. 당신은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칭찬할 만하며 효과적인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때때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그렇다. 자신의 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때면 당신을 패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문제에 관해서라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앞의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말해 주겠는가? 당신은 노력함(trying)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trusting)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 줄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줄 것이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은 받아야 하는 선물이니, 획득해야 하는 보상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바울이 구원에 대해 말한 것처럼 말이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노니라”(롬 11:6)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아니면 행위라는 것

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후에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리는, 영적 승리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 보았는가? 당신의 그 노력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었는가? 나의 변론은 이쯤해서 잠시 접도록 하자.

나는 여러 해 동안 ‘동기부여(motivation)→정죄(condemnation)→재헌신(rededication)’이라는 사이클의 함정에 빠져 신앙생활을 해 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서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다. 때로 내가 특별히 영적인 동기로 충만할 때는, 그 간격이 조금 좁혀졌다고 느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거나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는, 나는 실제로 언젠가 그 둘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은, 내 동기부여의 수준이 약화되고 열정과 열의도 수그러드는 다음 과정이었다.

28

내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신앙의 쇠퇴는 언제나 정죄감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심지어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을 때에도,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귀는 신나는 운동회를 벌였다.

어떤 때에는 영적으로 망망해졌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꾸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 되면 나는 나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재헌신했다.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혐오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진실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성경을 더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본 궤도로 돌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더 하겠다고 약속하곤 하였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결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성경 다섯 장을 읽으면, 열 장을 읽었어야 한다고 느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마땅히 두 사람을 인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라는 나에게 아내 멜라니는 “당신은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곤 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드리려 노력하는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영적인 회전문마를 타야 하는 비참한 여정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29

1. 비참한
그리스도인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동기부여에서 정죄로, 그리고 다시 재헌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만일 당신도 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얼마 후 챗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은 당신을 병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회명을 주고 싶다. 이와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직접 이 멀미나는 악순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악순환에서 벗어난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한 경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당신은 그 규칙을 알고 있다!

문명화된 사회의 초석은 법률이다. 그 시민의 행동을 규제할 법이 없다면 나라는 무정부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은 법률 '지키기에 바람직하거나 의무적인 규칙 또는 질서'라고 정의한다.² 우리는 모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배웠다. 어린이가 저녁식사 전에 쿠키를 훔쳐 먹거나, 시속 60킬로미터 지역에서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체계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한 기능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 율법은, 인간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을 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이스라엘에 제시하셨다.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는 데 실패했음을 전하고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義: righteousness)가 외부의 규제로부터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셨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규칙이 바뀐다고 믿는 것 같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 중에,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을 도와준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영적 수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친 후에 비키(Vicki)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왔다. "목사님, 저와 잠깐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목양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구직된 휴지를 손에 쥔 채 안절부절못하면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목사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여러 차례 헌신했어요. 그리고 비록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꾸준히 성경도 읽고 있어요. 자명종 시계에 시간을 맞춰 놓고 일찍 일어나 기도도 합니다. 유년부에서 봉사하기로 하고 그 부서에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제 생활 가운데 어떤 죄 때문에 제가 불행한 것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비키의 상황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경우였다. 그리스도 인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적인 생활양식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경험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나 역시 여러 해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분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나는 자녀의 품행이 좋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하늘에 앉아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동기부여 단계에 있을 때, 나는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했다. 한번은 친구와 함께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기도 하였다. 우리는 완악한 ‘전도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허기가 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우리는 공원에서 자전기를 타고 노는 꼬마로 하여금 ‘죄인의 기도’를 하게 하고 곧장 근처 햄버거 가게로 달려갔다!

어떤 때는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한번은 목양실에서 나오지 않고 사흘을 지낸 적도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 너무도 배가 고프고 지쳐분해졌을 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없었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를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실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다.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 주겠다. 때때로 나는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엉망일 때가 있다. 사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목사도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아들 데이비드(David)의 친구가 한번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날 저녁 그 아이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데이비드네 식구도 우리와 똑같던데요!” 그 아이가 일찌감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고상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날아든 청구서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바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멍청한 일로 웃음을 터

포리기도 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트레키즈(Trekkiess: 영화 “스타트렉”의 열성적인 마니아를 가리킴-편집자 주)이기도 하다. 또한 “인디아나 존스”와 “람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우리는 NBC에서 CBS로 자리를 옮긴 데이비드 레터맨(David Letterman: 미국 유명한 토크쇼의 MC-편집자 주)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감이 잡히는가?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다. 목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또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영적 생활이 성공적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것은 맞다. 사업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자유 기업 체계에서 성공하리라 낙관해도 좋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성공을 기념하는 기준은 생산성이다. 사업에서 엄청난 결과를 생산한 사람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성공한 사람은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기독교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접근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시키려 하면,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영적 성공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현대 교회에 침투해 있다.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오늘날 목사들은 “요즘 몇

부 예배를 드리나?” “예수는 얼마나 되나?” “작년에 몇 명이나 세례를 주었나?”와 같은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 나는 과거에 그와 같은 질문을 자주 했던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당혹스럽다. 내가 갖고 있던 교회 내에서의 성공에 대한 개념은 생산과 수행에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충실히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한다(즉, 생산과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나의 생활 전체가 규칙과 일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신도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마침내 기독교는 규칙이나 관례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날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날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초점이 수행이나 성과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의 성공 여부를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규율을 따라 살았는가에 맞춰어 기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자신이 세워 놓은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수행은 늘 부족하다. 패배했다고 느끼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규율을 따라 살려고 하면,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그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

여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수없이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근접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실패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축매제인지도 모른다.

상당히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경험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후 성공을 누리는 열쇠는 권력투구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성경 속의 역설이다.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 인식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영적인 실패자라고 느끼고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패배한 실패자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 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실패자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날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길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후 29년이 지나도록 존재하는 기초차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당신이 아직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해도 당신을 탓하지는 않겠다. 다만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해 동인, 나의 노력은 진실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과 사역 중에 놀라운 축복의 시기를 허락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과정이 아니었다.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나를 마룻바닥에 엎드려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다. 나의 심정은 실망을 넘어 낙망에까지 치달았다. 나는 절망했다. "하나님, 이것이 목회 사역의 전부라면, 저는 기권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은, 나의 이전 세월을 기뻐해야 지극히 평범한 수준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의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해 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당신도 '동기부여'→'정좌'→'재현신'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재현신하며 그분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라.

3.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어 보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은혜 안에 거하는 대신 율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

4. 생산성과 성과에 대한 초점이 현대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신약의 교회들은 이러한 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5.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성취감을 추구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식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렇지 않은가?

2. 새벽이 오기 Grace Walk 건의 약속

피로운 한두 시간 동안, 나는 책상 뒤 마룻바닥에 앉드려 있었다. 새벽 두 시경, 이제는 더 나를 눈물도 없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러한 감정의 폭발로 표출되었다. 이제 나는 지칠 대로 지쳤고 허탈감마저 느꼈다. 이른 새벽의 정적 속에서, 나의 생각은 누군가가 수주 전에 나에게 주었던 종이쪽지로 옮겨 갔다. 나는 컴퓨터 책상 위에 손을 뻗쳐 종이를 집어 들고 읽기 시작하였다. 그 글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에 관한 인용문이었다. 종이 한쪽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반대쪽에는 성공할 권리, 용납에 대한 권리, 즐거운 환경을 누릴 권리, 결과에 대한 권리 등 포기해야 할 권리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들고 목록을 따라가며 기도했다. “주님, 저는 생활 속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일에 지쳤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삶에도 지쳤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동안 내가 가치와 의미

를 부여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작정하였다. 성장하는 교회를 소유하려는 노력, 사역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나의 교육 그리고 나의 경험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목록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이런 문구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분이 내게, 나와 함께, 내 안에, 또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한때 이런 권리들을 나의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권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절대적인 헌신과 복종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구 아래에 나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나는 이 밤이 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감지했다. 잠을 자기 위해 짐으로 가기 전에, 나의 목회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어 두었다.

오늘 아침 자정과 새벽 두 시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므로 내 마음속에 구속적인 일을 행하셨다.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신성한 것이지만, 그것은 18여 년의 사역 경험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였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으로 나의 ‘에벤에셀’이 되기를 바란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그날 아침 목양실을 떠날 때,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원치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원하였다. 다 음날 저녁, 나는 교회 강단에 서서 회중에게 그 전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나누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다고 고백하였다. 또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강하게 새겨 주셨다고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에 대한 새롭고 더 발전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친밀히 아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하나님은 그날 밤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나의 사 랑스런 성도들은 기꺼이 도전에 반응하였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도문 예배를 중단 하게 했다. 그리고 형제들의 기도 모임을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으로 정하였다. 지매들도 기도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주일 학교 역시 열심히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 였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 생활에서 이루시고 계신 일을 우 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고 계셨다. 주님은 우리를 ‘완 전히 깨어진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패배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족감 (sense of self-sufficiency)의 끝으로 내몰고 계셨다.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기 전, 나는 나의 삶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후에 안 사실이 지만 내가 부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교회의 교인들 도 자신들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그리고 우 리의 환경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모든 자원이 바닥난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여서 결국 남은 것 은 주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 자리는 더 없이 좋은 자리였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의 전략에 의존 하는 법을 배워 왔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 한 이와 같은 기제를 ‘육신’ 또는 ‘육체’라고 부른다. 사 람 들은 삶에서 가능한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 내기 위해서 ‘육적인 생활’을 추구해 왔다. 여기서 육체를 단지 신체의 껍데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인지된 욕구를 채우려는 개인적 ‘기술(techniques)’로 생각 해 보라. 당신의 육적인 생활이 하나님에 대해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다. 육체를 자연스럽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육은 매우 매력적인 수도 있고 심지어 신령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 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삶에 대해 이렇게 기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 요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뻔더라(빌 3:4-7)

자격증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부리움을 살 만한 자격들이 지원, 즉 보탬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고 말했다. 타고난 능력들이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할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만큼 독특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킨다. 그 유형은 우리의 재능과 외모, 재산, 교육, 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의지하는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다스의 사울은 그의 육적인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로 포장되어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인이 용납과 인정에 대한 요구를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서 찾으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육체의 동ий어가 '자족하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

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익숙하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거짓된 철학을 영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할 때 축복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내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종종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저의 노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신앙정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이다.

자족함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악명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런 영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무의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흥분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결심하였다.

“여보, 사리!”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이나 머지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나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다르게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 같아요. 당신, 후시 약속된 아이가 우리의 종 하갈을 통해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리,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쳐 갔다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

나머지 이야기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로 갔으며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 약속의 아들은 사리를 통하여 오게 되어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때에 태어날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리는 진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울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자조적 노력의 결과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갈등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 행한 지식인들의 노력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나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의 방에 들어가 그를 침대로 옮기려 하였다. 내가 59킬로그램인데 비해, 그의 몸무게는 90킬로그램이나 되었다. 마른 편이긴 했지만, 나는 환자를 들어 올리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휠체어 앞에서 서 양다리를 상대의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커드랑이 밑을 잡고 들어 올려서 침대 위에 확 돌려 앉히기만 하면 되었다.

대개의 경우는 잘 되었는데, 이 환자편은 여의치가 없었다. 내가 그를 들어 올려 의자와 침대 중간쯤 옮겼을 때마다,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 힘으로 바로 서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졌다. 두 발이 양 옆으로 미끄러졌고,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힘을 빼세요.” 내가 말했다. “제가 인아서 옮겨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나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바둥거렸고, 결국 그는 내 손에서 벗어나 마루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의자 위에 걸쳐 있던 지팡이로 나를 내리쳤다. 그날 후로 나는 그를 달래 보려 무척 애를 썼지만, 그는 나를 자기 근처에 일신도 못하게 했다. 그가 나를 도와주려 하지만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지속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언제나 갈등이 따라온다. 나는 이제 아내 벨라나가 옮았다는 것을 안다. 만일 내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결코 삶의 만족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게

된 후에야 나는 비로소 평안을 경험하였다.

당신은 영적 생활에서 갈등하고 있는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지속하는 기교와 행동양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러한 자원들에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의 무개를 더해서서 당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지우신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아마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시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아직 나를 이단으로 몰지 말라. 그러나 나는 위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상한 심령의 자리(place of brokenness)’에까지 인도하려 하실 때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짐을 무겁게 하셔서,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도록 만드신다. 이 상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격하시는 바는, 당신의 자원이 바닥을 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이 도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그저 당신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일만 하시는 분 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당

신의 힘이요, 능력이시다. 당신을 깨뜨려 상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실 의도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그것이 당신의 모든 상황에 필요한 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환란이 온다고 놀라지 말라. 환란과 시련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족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쓰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나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왜 사태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의아해 했다. 지금 시점에서 회상해 보면, 하나님은 사태가 더 어려워지게 하는 방법으로 나를 돕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주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셨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상황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활양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게 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의 자립의 결실을 깨뜨리고 계신지도 모른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런 일을 경험하기까지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없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의 기본적 어려움은 속사람이 걸사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의 첫번째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영은 덮개에 싸워 있어서 쉽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일 걸사람을 깨고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걸사람만큼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일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걸사람이 주님에 의해 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걸사람이 깨어질 때만 속사람이 상함을 통과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걸사람을 깨뜨리길 원하신다. 속사람이 해방될 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최고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함을 받기 위해 나의 목양실을 방문한다. 나는 삶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하였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절망의 소리를 진진히 살펴보자.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제나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God’s sovereignty)’이라는 교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지탱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고통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간구했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분은 그 기도에 반응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함에 대한 진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을 사용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분은 당신 스스로의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당신을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역경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육체의 성향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역경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육체의 정의를 기억하는가? 육체란 ‘삶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즉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가리킨다. 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는 종종 자신을 주님께 재현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아와 모든 능력을 재현신하는 데 있지 않고, 자아에 대한 소망을 모두 버리는 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through) 그분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for)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신적인 축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사는 데 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물론이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이다. 율법은 사람으로 “주님,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도와 당신의 규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으로 “주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제 안에 거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방법으로 저를 통해 당신

의 생명을 나타내소서.” 하고 말하게 한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키기 원하시는 일의 목록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그 삶을 살기도 하신다. 결국 그리스도 외에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한 노력과 시도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이다. 피터 로드(Peter Lord)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과파이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일생을 노력하면서 보냈는데, 죽어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과파이를 좋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과의 친근한 교제를 통해 그분을 일어가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선한 일이 차지할 자리가 있는가? 물론이다. 선행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묘한 위협이 된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 그분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이 울무에 빠졌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이 하시는 말을 쫓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그런데 마르다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다.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주무실 방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암튼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일행에게 좋은 대접을 하고 싶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분주히 집안을 왔다갔다 하는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였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 나이가 저를 명하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 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가지런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눅 10:40-42)

마리아는 쉬고 있을 때, 마르다는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다. 신앙생활을 봉사 지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곁으로 드러나는 활동 수준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짜증스럽게 느낀다. 누기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분산되었다(distracted)’고 기록하고 있다. 무엇으로부터 분산되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분산되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

나의 주의를 예수님으로부터 분산시켰는가? 그렇다.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이었다! 성경께서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보다 사역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을 때,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시였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바쁜 것이 우리를 그분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진정하거라.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은 좋은 것이나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섬기는 것과 휴식하는 것은 둘 다 필요한 것이다. 마르다야, 너는 균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오히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 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다. 몇 가지가 필요한가? 한 가지, 즉 주님 안에서 쉬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 한 잔만 떠 오너라.” 하고 부탁하셨다면 당신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으리라 짐작하는가? 그녀는 즉시 뛰어갔을 것이다. 반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셨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잠자리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게다가 예수님은 주무실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은데, 그런 부탁을 듣지도 못했을지 모른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를 알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한번은 프랭크(Frank)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목양실을



Study Guide

찾아왔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즈음 제 마음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저는 교회 집사이기도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요. 재무 위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조금 전에 살펴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프랭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따라서 마음이 분주했다. 마르다처럼 말이다. 분주한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나도 그런 생활을 해 본 적이 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면 할수록, 사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나도 하나님을 섬기려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좌절감과 불안을 느꼈다. 사실, 내가 나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마룻바닥에 대고 울고 있었을 때는 정말 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1. 로마서 12장 1-2절을 읽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정의해 보라.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겼다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육신’은 그리스도를 떠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터득한 전략들을 뜻한다. 그런데 육신을 좇아 사는 것은 언제나 추하기만 한가? 시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7절에서 설명한 육신적인 생활 방식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

3. 개인의 능력이 개인에게 어떤 영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4. 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아 보일 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축복하시는가?

5. 창세기 16장 1-6절까지 읽어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려 했는가? 그것의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우려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6. 당신은 상함(brokenness)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7. 하나님이 한 개인을 상함의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내버려두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고통을 경험하도록 그냥 두시는가?

8. 누가복음 10장 40-42절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해당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3. 완전히 Grace Walk 새로운 나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과학시간에 최면술사가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네 명의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모두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들이 최면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그들이 의식을 회복하면 네 명 모두 서로 다른 동물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한 남학생에게는 원숭이가 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학생에게는 개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 여학생에게는 닭이 될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칠면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면술사는 “내가 다섯까지 세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면, 여러분은 깨어나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천천히 다섯까지 센 후 ‘딱’ 소리를 내자마자, 정말 그들은 깨어났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주 장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동물들처럼 행동했다. 한 학생은 원숭이처럼 두 팔을 흔들며 이리 저리 뛰어다녔다. 그는 책 상 위로 뛰어올라 치타처럼 소리를 질렀다. 또 한 학생은 개

60

...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럼 찾아오며 교실 안을 뛰어다녔다. 다른 학생은 팔짱을 끼고 마치 일을 받으려는 닭처럼 꼬꼬대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또 다른 소녀는 최대한 크게 소리를 내고 두 손으로 마룻바닥을 긁으며 칠면조처럼 뒤뚱거렸다.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다. 잠시 후, 최면술사는 그들을 깨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워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나 대부분의 경우 성도답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쉽다. “당신 자신이 되라.” 이 생각은 중요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 해 동안 나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여덟 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천국에 갈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가장된 정체성(assumed identity) 아래 생활해 왔다. 그것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암시의 힘(power of suggestion)’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거짓된 정체감이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도 이와 똑같은 잘못 된 관념을 가지고 생활해 왔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도

61

...
3. 완전히
새로운 나

신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가? 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 동안 나의 정체성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식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마이클 조던은 운동선수이며, 스티브 마틴은 코미디언이다. 휘트니 휴스턴은 가수이다. 당신은 이들에게서 어떤 공통분모를 발견하는가? 이 세 사람의 공적인 정체성은 그들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인가요?” 하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분명 당신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 주세요.”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먼저 말해 줄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떠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분은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남(birth)’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 받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말한다. ‘피조물(creation)’의 어근은 ‘창조하다(creates)’이다.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을 향상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당신을 단순히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신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당신을 만나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영적 인(spiritual) 부분이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삼위 일체적인 존재이다. 당신이 육(body)과 혼(soul)과 영(spirit)의 세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 위격(persons)으로 존재하신다. 당신의 육은 선천적 감각에 반응하는 다섯 가지 감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혼은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된다. ‘혼’은 곧 ‘인격(personality)’이라는 말과 같다. 혼은 자기 의식적이다. 당신의 영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죽은 상태였으며, 성령님이 중생의 경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당신 정체성의 본질은 당신의 영 안에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

는 영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당신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없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체성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정체성은 혼이나 육의 수준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본질은 영의 수준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0)라고 말했다.

영에 생명을 주는 출처는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그분에게 돌아서면, 그분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 생명을 주신다.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임재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행 17:28)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잘 묘사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가족적 특성을 누리게 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당신은 한 사람의 성도(saint)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성도(saint)’라고 부른다. 이 부분에서 그는 그들의 영적인 탄생에 근거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행동은 분명 성도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1장에서 그들을 ‘성도’라고 지칭한 그는, 나머지 편지에서 계속해서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다. 성도, 즉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은가! 이것은 당신이 죄 없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하여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 주셨다는 뜻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술작품(work of art)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엡 2:10, 표준새번역). 작품(workmanship)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poema’에서 유래된 말로, 영어 ‘시(poem)’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평위에 찬상의 시 한 편이 되도록 만드셨다.

당신은 의롭고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은 의의 선물을 받았다(롬 5:17). 주 예수께서 당신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당신의 영은 의로 가득 채워졌다. 영적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용납되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었다(엡 1:6). 예수님이 당신을 받아 주셨고 그분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용납 되셨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용납은 당신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를 성도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천상의 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느낌을 안다. 그러나 당신은 느낌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신의 인격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면서, 당신 자신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나는 왜 진정한 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가

최면에 걸렸을 때 동물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게 행동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씨름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인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핵심은 썩어 빠진 죄인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 아니다!

최면술사가 네 명의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암시를 계속 믿게 했다면, 그들은 아직도 찾고 뛰어나다고 포포닥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에 눈을 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진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당신은 거짓된 정체성 아래에서 생활하도록 최면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삼기려 노력하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보지는 않았는가? 진리가 당신을 깨우게 하라!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성도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은 사탄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탄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나아간다.

밥 조지(Bob George)는 이 진리를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왕이 모든 창녀들에게 사면을 베풀겠다고 포고령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라. 만일 당신이 창녀라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는가! 당신은 이제 법을 피하는 것에 대해, 또는 범죄자로 기록에 남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면은 분명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면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왕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아내가 되어 주지 않겠다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 누구라도 창녀의 삶을

70

!!
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머리고 양비로서 살아갈 것이다. 왕의 아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창녀의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 사함 받은 것이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죄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

최면에 걸린 네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최면에서 깨어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몹시 부끄러워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 참된 정체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은 때로 옛날 생활 방식으로 다시 빠져들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행동이 변화된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새로운 인격과 모순된다. 때문에 그들은 머지않아 진실에 눈을 뜨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야!' 라고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그대로 당신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을 알고 있는가? 애벌레는 자신의 주위에 고치를 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되어 나타난다.

71

!!
3. 완전히
새로운 나

당신 앞에 나비가 있다고 하자. 나비를 보며 “여러분, 이리 와 서 이 잘생긴, 변화 받은 애벌레를 봐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분명 한 마리의 벌레였다. 그러나 ‘변화(converted)’ 되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과거에 비추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태인 나비로 보는 것이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 비록 당신이 항상 좋은 나비처럼 행동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당신은 영동한 곳에 내려앉을 수도 있고, 옛 벌레 친구들과 어울리며 기어 다니는 시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결코 다시는 애벌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

내가 정서적 위기를 겪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비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은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였다. 나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었다. 나의 정체성을 이해한 것이 나로 죄 없는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즉시 깨닫는다. 죄된 태도나 행동은 나의 새로운 성품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이 들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정죄감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 성령에 의해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의식하게 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떠올리면, 죄를 버리

고 나의 진짜 신분에 맞게 살고 싶은 갈망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온전히 용납된 거룩한 자이다!

만일 당신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저명한 설교자 해리 아이언사이드(Harry Ironside)가 한번은 역사상 성자라고 인정을 받은 유명 인사들에 대하여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는 적이 있었다. 아이언사이드가 물었다. “지금까지 진짜 성자를 만나 본 적이 있나요?”

“아, 아니요!” 하고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흥분되는 일일 거예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성자 해리 아이언사이드(Saint Harry Ironside)요.” 아이언사이드가 손을 내밀면서 대답했다.

그의 말이 맞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을 63차례에 걸쳐서 ‘성도(saint)’라고 부른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크게 외쳐 보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말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으라.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애벌레처럼 살았던 나비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영적 출생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신다는 진리를 명쾌하게 보여 주는 이야기가 구약

에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젊은 롯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 성경은 그가 소떼와 양떼 그리고 많은 천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들이 함께 여행하는 도중,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롯에게 와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가지고 제안했다.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돌이 넘겨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창 13:10-11)

롯은 그의 가족과 하인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소돔으로 옮겨 갔다. 그의 결정은 순전히 재정적인 혜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실수였다.

소돔에서의 롯의 생활에 대한 모든 언급은 그와 그의 가족이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롯의 생활 양식은 그가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 그가 소돔에서 범한 죄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1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다. 롯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잉태하였다는 기록이다. 롯의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미리 알려 주시면서 그에게 가족과 함께 소돔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롯의 가족

은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롯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불과 유형으로 도시를 멸망시키시기 직전, 그의 아내와 딸들은 억지로 그 도시로부터 끌려 나왔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당신은 이 사람 롯을 묘사하기 위해 무슨 단어를 사용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아는가?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벧후 2:7-8)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같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부르시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의를 전가하심(imputing)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에 반응하셨다. 로마서 4장 3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를 ‘계산(counted, imputed: 의로 여기셨다)’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롯의 모순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의를 전가(credit)하셨다. 이것이 그의 죄된 행실을 정당화하는가? 물론 아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롯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라. 나는 장담할 수 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행동이 어리석었노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 롯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 보도록 하자.

하나님은 뜻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지만 말이다. 그는 분명 구약 시대에 살았다. 그에게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았다. 뜻과 오늘날의 신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의를 전가(imputed)시키셨지만, 당신이 구원받을 때는 의를 전수(imparted)하셨다. 의를 전가하는 것은 법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의를 전수하는 것은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뜻에게는 의가 전가되었고 그는 의롭다고 여김(credited)을 받았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을 받을 때, 당신 안에는 의가 창조된(created) 것이다. 당신이 에벨라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신은 나비이다. 뜻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 왜 나비가 진흙에서 기어 다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계시하셨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나는 그분이 보시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는가? 만일 당신의 현재 인격이 새롭게 태어났다면, 과거의 당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1.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용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신앙과 모순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실까?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라.
2. 그리스도 인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3.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자신을 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보는가? 성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주은 Grace Walk 옛사람

4. 로마서 9장 30절-10장 4절까지 읽어 보라. 유대인들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의를 얻지 못한 반면,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의롭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라.

5. 왜 죄사함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6. 뭇은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그의 행위는 의로웠는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실교자들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아예 잘못된 것들이 있다. 당신은 함께 있을 때마다 싸운다는 불독과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불독은 먹이를 잘 먹었기 때문에 늘 힘이 좋았고, 반면에 별로 먹지 못한 애완견은 약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울 때마다 언제나 불독이 이겼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애완견이 이기고 불독이 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애완견을 잘 먹이고 불독을 굶겨 버리면 된다. 결국 애완견은 튼튼해질 것이고 불독은 약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실교자가 전달하려는 요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옛성품과 새성품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성품은 항상 갈등 중에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만일 당신 안에 있는 애완견(새성품)이 불독(옛성품)을 이기기 원한다면, 당신은 새성품을 먹이고 옛성품을 굶겨야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거짓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이 메시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속박하는 거짓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예화가 건과하고 있는 것은 그 불독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다. 불독은 이미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가장 반이들이기 어려웠던 진리는 나의 옛성품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옛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에 직면했을 때에도, 나는 나의 옛성품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진리는, 옛날 스티브(구원받기 전의 '나' 라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이 사실을 놓고 씨름했다. 하나님님이 이 진리를 계시하셨을 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마치 엄청난 피력을 지닌 적수와 싸우기 위해 링에 들어간 권투 선수와 같은 기분이었다. 매 라운드마다, 상대방은 그 권투 선수를 무자비하게 두들겼다. 각 라운드가 끝나는 종이 울릴 때, 그는 자기 코너로 돌아가 트레이너에게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나가서 그를 죽여 버리라구! 그는 너에게 손 하나 대지 못했어!" 이것은 매 라운드마다 되풀이되었다. "그는 너에게 손 하나 대지 못했대구!" 마침내 권투 선수는 그 트레이너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심판을 자세히 살펴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녹초가 될 지경으로 때리고 있대구요!"

나는 그 기분을 알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나의 옛성품이 이미 죽었음을 계시해 주셨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녹초가 되도록 때리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육체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육체의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일단 지금은 이 옛성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 믿는 바가 당신이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당신의 성품은 무엇인가?

웰스터 사전은 성품(nature)을 '어떤 것의 본질적 특성(character), 타고난 성격 또는 기질(disposition)'이라고 정의한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이고 타고난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 생활의 핵심에, 그리고 영적 수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갈망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토니(Tony)는 불방학을 맞아 자신의 타락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저는 지난해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리아나를 피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데이토나(Daytona) 해변에 놀러 갔다가 '약간 실족했다'고 덧붙였다. "때때로 내가 진짜로 변화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토니, 마리아나를 피운 것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나?"

"비참하지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마리아나를 피우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나?"

"아니요. 나는 마리아나를 피운다고 해서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느냐고 반문했죠.”

“지금은 왜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지 아는가? 그것은 자네가 새사람이기 때문이지. 마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네의 성품이 아니라네. 옛날의 토니는 마약 같은 것이나 좋아하는 육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런 생활 습관은 이제 새로운 토니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죄를 짓는 데서 오는 쾌감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쾌락이 사라지고 나면, 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공허감과 불만족감만 느끼게 만든다. 당신의 경험으로 볼 때 정말 그렇지 않은가? 죄된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성품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죄를 지을 때 내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기본 성품이 죄의 성품이라면, 죄를 짓는 것이 괴롭지 않을 것이다. 짓는 것이 게에게 자연스럽고 뛰어다니는 것이 원숭이에게 자연스럽듯이, 죄를 짓는 것이 당신에게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죄를 지으면 불편하다. 당신의 성품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당신은 예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모시고 있으며, 과거의 당신은 죄 안에 죽어 있다. 구원받기 전에 당신에게는 하나의 성품밖에 없었다. 그것은 죄의 성품이며, 거듭나지 않은 성품, 아담의 성품, 자연인, 또는 옛 자이라고 불린다. 그때의 당신 존재의 본질은 당신이 아담 안에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 후로, 당신에게는 하나의 성품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 안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성품은 예수님 그분 자신의 성품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성품이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성령을 어떤 사람의 옛 죄성과 연합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분에게는, 반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탄의 자녀이고 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삼쌍둥이(Siamese twins) 신체의 일부분이 붙은 채 태어나는 쌍둥이(역자 주)를 출생시킬 계획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생하는 동네나 짐머다 서지 못하리라”(마 12:25)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분생하는 짐’으로 만드셔서 결국 완전히 실패하도록 뜻하지 않으신다.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때때로 내가 분생하는 짐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뻔한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의 내적 싸움에 대한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분생하는 짐이 아니다.”

당신은 두 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존재했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옛사람은 죽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정체성인 옛 죄성에 대해 기술하기 위하여 ‘옛사람(old m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라는 하나의 성품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발견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한다. 당신은 ‘지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오래된 죄 성품이 죽었다.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옛 죄성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잠시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라. “나의 죄성이 정말 죽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놀랄게도, 성경은 우리의 죄성이 실제로 죽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crucified)’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리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현재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는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바울의 말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 그는 그의 죄성(sin nature)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죄성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만일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라. “만일 우리의 죄성이 죽지 않았다면, 무엇이 죽었던 말인가?”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옛 자아가 영원히 죽었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죄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

게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실종을 믿노니(롬 6:23, 6: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몇 차례 나오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어느 부분이 죽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소유했던 죄성,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 Jones)는 이 로마서 6장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하였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위르가 되며, 확신을 주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측면 중 하나이다.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런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당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도 당신의 옛사람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곳은 없다. 그것은 그 존재가 이미 사라졌다는 자명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당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당신과 내가 요구받고 있는 바는 우리가 아직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일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신약에서 청화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신약은 말한다.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여전히 옛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옛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려면, 아담 안에 있던 당신은 존재를 감추었다. 그의 실체는 사라졌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⁴

옛 생명은 도말되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 하나님은 허브리 민족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셨다. 모든 남자의 포피(包皮)를 제거하는 것은 그들의 옛 정체를 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취득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은혜의 시대에 외서는 하나님 이 그분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는 걸사람이 아닌 속사람과 관계된다.

찰스 스탠리(Charles Stanley)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생명이 시작되는 몸의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할례를 사용하신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옛 죄성을 직접 제거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옛 죄성은 아담적인 성품에 의해 독소가 퍼진 성품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반항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그 것을 처리하신다. 떼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 옛 죄성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옛 죄성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 죄성이 도말되었다. 그것이 바울이 할례, 즉 잘라 버리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었다.⁴

그래서 우리 옛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 의 성령에 의해 행해진 할례로 인해 우리로부터 영원히 쫓겨져 나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미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거미를 죽여 버리신 것이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는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니라”(골 3:2-3)고 말한 것이다. 옛 당신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느낌은 사람을 기만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가족은 식스 플래그 오버 조지아(Six Flags Over Georgia: 놀이공원-역자 주)를 다녀왔다. 방문 기간 중 한번은, 설득에 못 이겨 ‘프리 폴(Freefall)’이라는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다. 이것은 ‘대회 전식 관람차(Ferris Wheel)’만 간신히 탈 수 있을 만큼 매우 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놀이기구로, 작은 의자에 묶인 채 10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스틸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 ‘채다툼 재미’를 경험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 한 젊은이가 나를 의자에 묶었다. 그때 흥미 있는 일이 일어났다. 나의 느낌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니, 다시 설명하겠다. 나의 느낌이 나에게 부르짖기 시작했다. 한 목소리로, 느낌이 외쳤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나의 느낌을 믿었다! 그러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느낀 순간, 나는 느낌을 붙잡았다. 그리고 느낌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여기 서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기구를 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 이 기구는 여러 해 동안 여기 있었고 이것을 타다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유능한 기술자가 이것을 설계한 데다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도 했어. 이것은 안전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나의 느낌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등을 크게 다치고 말거야!” 이 모든 것은 내가 의자에 묶이고 떨어지는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졌다. 나의 느낌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죽지 않았고 등을 다치지도 않았다. 평생 기억할 만큼 너무나 재미있었다(그렇지만, 다시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내 나이의 남자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그렇게 긴장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 느낌과 감정이 진리와 모순되는 것을 외칠 때, 사실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직면하게 된다. 옛성품에 대한 진리를 놓고 바로 지금 당신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당신의 죄성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구절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느낌이

반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성품만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셨고 성경도 이를 입증한다. 그분은 세 옷의 천 조각을 가지고 헌 옷을 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새사람과 옛사람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 둘을 한 곳에 연합하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짓이라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새 술(성령)을 오래된 낚은 가죽부대(옛성품)에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낚은 부대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새성품)에 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빛(성령)과 어둠(옛사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믿는 자(영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영이 죽은 사탄의 자녀)와 결혼을 통해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분은 우리 내부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연합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교훈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삼기지 못한다”(마 6:24)고 말씀하셨다. 이게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앞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체와 사탄에게 충성하는 또 다른 정체, 즉 서로 갈등하는 두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인가? 이나더 길을 잃은 사람들은 돌이 아닌 하나의 주인(사탄)을 삼기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돌이 아닌 하나의 주인(하나님)을 삼기고 있다.⁹

당신은 당신의 죄성이 죽었다고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죽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당신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성

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육체와 영 사이의 갈등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새로워진 당신에게는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갈망과 승리의 삶을 살 능력이 있다.

내 목양실에서 절대적 헌신의 밤을 맞은 지 며칠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처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진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신화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실제적 경험으로 옮겨가는 시간이었다. 승리를 체험하는 것은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나도 학습된 진리가 살아 있는 진리로 전환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처럼 나의 삶을 변화(change)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를 교환(exchange)하기 원하셨다.



1.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두 성품을 가졌는가?

2.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면죄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이 글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옛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행해진 할례로 인해 우리로부터 영원히 잘려져 나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 그는 자신에게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때때로 죄를 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만약 그리스도인의 죄성이 죽었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가?

5. 그분의 생애 Grace Walk 경험하기 영감

내 손에 들고 있는 편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다. 몇 주 전에 목양실 바닥에 앉드렸을 때,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 본 앞에서 나를 완전히 비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넣어 달라고 간구 하였다. 지난 몇 주 동안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는 채 신학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절대적 헌신을 하기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해 보리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사역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인가? 나는 매일 주님께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

그 편지 한 통이 내 안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목사님 한 분이 국제적인 사역 단체인 GMT(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¹⁾에서 주최하는 일일 세미나에 나를 초청하는 편지였다. 편지에서 그 목사님은 지난번 세미나에서 선포된 전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에도 그분의 사역을 존경해 왔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나에게도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하였다. 여러 해 동안 십여 개의 세미나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번 세미나는 무엇인가 다를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 달랐다.

세미나에서 선포된 진리들은 가문 땅을 적시는 물처럼 나의 마음에 뿔려들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육체적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성공을 위한 헛된 투쟁은 하나님이나 나를 자만심의 끝으로 몰고 가시는 방법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 안에 계시지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교회를 사임하였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서 사임한 것이었다. 나는 기도하였다.

“주 예수님, 저는 저의 삶을 온통 잘못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어요. 주님을 위해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애썼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모든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바로 저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몇 주 동안 나는 정서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재생명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그 전에도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을 직접 체험하며 누리는 것이다. 나는 일생을 살아왔던 땅 위에서 석유를 발견한 거지와도 같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흥분한 목소리로 『명생보중』(Lifetime Guarantee)⁹⁶이라는 책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을 읽어 주곤 하였다. 나는 ‘실교 단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때마다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설교를 했다. 그녀는 농담조로 내가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된다고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이 ‘교환된 삶(exchanged life)’은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첫번째 은혜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며 깨달음이었다! 내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새롭게 거듭났던 여덟 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그저 즐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후 머지않아, 나의

아내 멜라나도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생명 자체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확인하기 위해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말라. 이 영적 진리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나의 아내는 내가 경험한 정서적 흥분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를 적용하였다. 그녀에게 그것은 감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믿음이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이해는, 내가 경험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급진적 변화를 그녀의 삶에 가져다주었다. 열쇠는 감정이 아닌 믿음이였다. 그리스도를 지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특정한 종류의 감정적 확증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떤 측면에서든 느낌과 감정은 부수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헬후 1:3-4)

인간의 영은 존재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정체성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본질이 영의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당신이 일정한 교리적 믿음을 준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신 존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 자체가 되신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원한 연합 가운데 당신은 주와 함께 연합된 것이다. 그분은 이제 당신 안에 사시며,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의 위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울

은 말했다.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회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후 5:15-16)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셸리(Shelly)는 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모든 초신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녀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은혜를 깨닫게 된 후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다. 이전 같았으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바른 시작’을 위해 미평히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평히 해야 할 모든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대신 그리스도가 그녀의 생명을 말해 주었고, 그 안에 거하면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될 것이라 알려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망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지나간 몇 분 동안에 그녀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 주었다. 나는 성경을 펴서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녀를 통해 그분의 생명
을 사시도록 허용하면서 순간순간의 삶을 선택하라고 격려
하였다. 그때 그녀가 나를 흥분케 하는 말을 하였다. 나는
새신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것
은 내가 신앙생활 29년 만에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
의 생활은 쉽네요, 그저 그분이 하시기 하면 되네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
인이 아니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진리
를 간파한 것이다. 당신이 그분에게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
리스도인의 생활은 참으로 쉬운 것이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생
각하는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쉬운 것으로 보는
가, 아니면 어려운 것으로 보는가? 나는 반복적으로 나 자
신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다. 그러나 내가 그
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하는 열망과는 관계없이, 아무리 열
심히 노력해도 일관성 없는 모순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했
다. 나는 진심으로 꾸준히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당신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
쁜 소식을 먼저 말하자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실
패할 것은 더욱 분명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노력은 언제
나 좌절과 실패를 가져올 뿐이다.

나는 목회 사역의 일환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
다. 그러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았
다. 심장 수술을 받은 후에 인공호흡기를 통해 깨어나는 사
람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
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호흡기는 호흡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환자는 그저 긴장을 풀고 호흡기에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당황하
고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진다. 자기를 위해 호흡하게 되어 있
는 기계에 반항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영(spirit)’이라고 번역된 헬리어 ‘pneuma’는 ‘호흡
(숨: breath)’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말이다(pneumaa를 어
근으로 하는 말로 pneumonia나 pneumatic과 같은 말을 본 적
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하나의 투쟁
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서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꾀도한
호흡(hyperventilating)’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나쁜 소식
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
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사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
신이 그리스도인의 삶(Christ-life)을 살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삶(Christ-life)을 살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이 허락할 때는 언제든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사실 용의가 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인해 완전히 낙초가 되어 있다.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마라톤 경주를 준비하는 만큼의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인 중에서 장거리 선수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쳐 탈락할 때까지 탈릴 것을 요구받고 있다. 오해하지 말라. 그렇다고 영적인 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적 활동은 한푼어치의 가치도 없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아무리 싫어해도, 계속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탈진해 있다. 현대 교회 안의 많은 이들이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고, 주일 학교 아들을 가르치거나,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유아를 돌보고, 기거호호 방문하고, 전화를 거는 등 끝도 없는 일들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그들의 짐은 무겁다. 그러나 그들은 '원신'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영적인 삶은 어떤가?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적인 봉사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양식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묘사하기 위하여 '쉬게' '쉽고' '가벼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만일 이 단어들이 당신의 생활양식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환경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영적 관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왜 현대 교회 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쳐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지쳐 있는가? 이들은 '인공호흡기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육체 안에서 생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분의 육체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졌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분은 육체 없이 그 일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원하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함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라(고전 6:19-20)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세상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교회이다. 예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모든 영적 봉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역 가운데 당신을 통해 움직이는 결과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역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전적으로 드러지고 헌신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장벽은 '자기의 노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노력하며 씨름한다. 그리고 거듭 자기(self)를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자기'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사실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인가?

그 외의 다른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그분을 위

해 사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린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이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 노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 노력이 영적인 인식과 평안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종종 자아를 부추기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다. 사람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느끼면, 종교적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과 인정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성취감과 만족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목사로서의 나의 삶 속에서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교인들의 출석 수가 증가할 때, 나는 성취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내가 설교한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흐뭇함을 느꼈다.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 노력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긍정적 결과를 통한 자아의 확인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더 많은 성공을 원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하는 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육체를 흐뭇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래 전 롤링스톤스(Rolling Stones)가 불렀던 노래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I Can't Get No Satisfaction)”는 자기 노력을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의 영적 성장(주행거리)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추진력(엔진회전수)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봉사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역 교회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지 않으신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것을 크게 고마워하고 높이 평가할지도 모른다.

죄책감에 의해 잘못된 동기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느끼며, 늘상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턴(Dawn)은 자신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너는 네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니?”라고 매우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였다. 그녀가 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세상에 굶어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을 남기다니... 부끄럽지도 않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만일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듣게 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 해 준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도 않니?”였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녀는 언제나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분주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모든 종교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네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니?”하고 속삭이는 환청을 들곤 했다. 턴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빚진 생각으로 가득하며,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은혜에는 가격을 붙일 수 없다. 그것이 무가치(worthless)해서가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priceless)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나에 따라 그분의 용납이 좌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다. 나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착한 소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진리와 너무 동떨어진 말이다.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

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납을 받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임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적 용납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전적으로 당신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 온갖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신자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데는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self-sufficiency)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만족(Christ's sufficiency) 안에 인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신적인 능력(divine ac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껏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오다가 자기 만족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자기 생활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종종 우리를 고통스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노력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 놓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명한 제안을 하신다. 만일 그분에게 당신의 생명을 드린다면, 주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교환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당신은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봉사(봉사는 쉬운가? 당신의 짐은 가벼운가? 예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참된 기쁨이 되게 한다.³⁹)

교환된 생활의 실제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다. 교환된 삶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데 필요한 첫 단계이다. 나의 경우에는, 이 장 처음에 소개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식으로 작기를 포기(재현신과 다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삼을 의사가 있는나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피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문제였다.

1. '교환된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교환된 삶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을 경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2.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다고 생각하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도록 만드는가?

3.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적 활동과 영적인 점진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신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4.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읽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보라.

5. 자자는 성도들이 왜 자기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네 가지 이유에 관하여 논의해 보라. 또 다른 이유를 더 들 수 있으면 제시해 보라.

6.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식'과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노력'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6. 올바른 오로부터의 자유 Grace Walk

얼마 전 아내는 나에게 애플펜타의 미술박물관에 같이 가지고 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약간의 '문화적 풍요'를 위해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지못해 기기로 동의했다. 애꾸는 초상화와 비둘어진 철재 조각품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공동품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거기서 반침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고가구를 보았다. 첫번째 기구를 보려고 다가섰을 때 “이 반침대 위에 올라서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을 보았다. 그 경고문을 본 것과 동시에 나는 반침대 위에 올라서면서, “나는 이것이 나를 받쳐 주리라 믿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즉시 내가 한 행동을 깨닫고는 바로 내려왔다. 반침대 위에 서지 말라고 한 경고문이 즉각적으로 나의 반사 신경을 자극해 바로 하여금 반침대에 올라서게 했던 것이다! 경고문이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반침대 위에 올라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12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잘못된 행동을 피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모든 것과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우면서 성경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이 어디에는 서고 어디에는 설 수 없는지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괜찮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오직 올바른 일만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단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그것이 어떤 것든 율법주의(Legalism)이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자기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용납이나 축복을 구하는 일체의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부른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물론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사가 그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주의자협회의 정회원이다. 당신이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이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규칙은 자절로 해결된다. 그러나 당신의 초점이 규칙에 맞춰진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돈(Don)과 데브라(Debra)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앙생활

113

6. 올바른 오로부터의
자유

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심해 왔다. 어느 주일 아침, 이들은 의논할 것이 있다며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일에 참여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 년 동안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움찔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모든 목사는 출석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틀림없이 역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부는 그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후, 그들은 삼 주 연속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했다. 일요일 아침 그렇게 일찍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교회를 더 자주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들을 더 영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나, 이들은 교회 출석을 스스로 세운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이, 늘상 그렇듯이 역효과를 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한다. 규칙과 규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순종으로 인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자극하여 불순종하게 만든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의문의 목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롬 7:5-6)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율법은 말한다. “당신은 해야 해, 해야만 한다고!” 반면,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한다. 성경과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어떤 규율 목록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 등과 같은 일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결과가 되어야지, 친밀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과 테브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원했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기 한다!”는 율법을 수용하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

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훈련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의 신앙 생활에 기쁨을 주지 못했다. 나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는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어떤 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만하면 된다고 만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게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영적 훈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영적인 길을 걸어도, 내 앞에는 “더 해야 한다.”는 표지가 보였다. 나는 길을 가는 도중에 주변 경치를 즐긴 적이 거의 없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에서 진정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했다. 주일이면 제자훈련반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씩 받았는데, 거기에다 그 전 주에 매일 성경을 읽었는지를 체크해야 했다. 나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식 구조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갔다. 나의 초점은 성경을 읽기 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마땅히 성경을 매일 읽어야 했다. 그래서 나에게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펼쳐 날마다 한 구절씩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 일요일에 확인란에 체크 하기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했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있는 확인란에 체크하기 위해 성경을 매일 한 구절 이상씩 읽었다.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은 없었고, 단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무만 있었다. 나는 이 경건의 시간(Quiet Time)을 꾸준히 지키기가 어려웠다. 바울이 로마서 7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율법은 내 안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자극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즉, 율법은 나로 성경을 읽고 싶지 않게 만들었으며, 또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성경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율법은 나를 정죄하였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경을 반드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진정으로 성경 읽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율법 전체이다! 하루에 성경을 일정한 분량 꼭 읽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율법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읽는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공부에 대한 율법지향적인 접근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피곤한 괴업으로 전락시킨다. 반면에 성경공부에 대한 은혜지향적 접근은 그것을 하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나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무의 족쇄에 매여 반드시 읽

겠다고 직정하였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데 이제 나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자유롭다. 내가 원하면 읽고 원하지 않을 때는 읽지 않을 자유 말이다! 성경을 안 읽어도 될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성경을 읽는 것에 얽매어 있었다.

생명 없는 율법주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경의 위치를 축소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당신은 내가 말하려는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목표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그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다 친밀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은 긴 성경 본문을 암송할 수 있었다. 매일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성경 공부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9-40)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접근이 학문적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의 허무한 종교적 일상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다.

성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접근은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활동에 대해 취하는 접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교회에 나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심일조를 하고, 기타 수십 가지 활동을 해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는 **한층의 영적 생명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교회 사역(church ministry)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적 사역(christian ministry)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기독교 사역과 텅 빈 종교적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 생명이다! 현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좋은**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본적인 시적이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지기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의 목록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한다면, 그는 결국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탈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 줄 믿고 종교적인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교회가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비참하고 공허하게 느끼면서도 계속 ‘봉사 활동’을 한다. 마치 율법의 포로와 같다. 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 오해하면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을 경

우, 우리는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면, 전에는 율법이었던 문제가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표현과 흐름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어 있지 않다. 우리의 옛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이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롬 7:1-4)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율법에 복종하였다. 그러나 이미 4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좇아 산다.

새로운 법 안에서 의 생활

규칙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외부적인 규칙에 순응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 이제 우리는 외부적인 요구가 아닌 내적인 갈망에 기초한 새로운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동기와 능력을 부여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규칙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롬 8:2)

율법주의는 '죄와 사망의 법'을 활성화시킨다. 율법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롬 7:5),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기(롬 6:23)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율법주의적 접근을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패배의 확률은 우리가 규칙에 초점을 맞추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에 정비례한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는 못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정죄감뿐이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은 율법을 '죽음의 사역(ministry of death: 죽게 하는 의문의 직

분'이라 부르고, 9절에서는 이를 '정죄의 직분(ministry of condemna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규칙의 체계에 대하여는 죽었고 초자연적인 은혜의 관계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은혜는 하나님이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의미이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부여하신다.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는 것을 뜻한다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주님이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친히 베푸신다는 뜻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함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율법에서의 자유는 그분이 나에게 그것의 수행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분이 친히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진리는 율법주의자의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안도감이 되었는지! 그분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시면 우리의 삶은 좌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종교적인 일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생명의

삶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함(doing)이 아니라 존재(being)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우리의 초점은 인격이지, 종교적 활동의 수행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면, 경건한 행동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그분의 생명의 결과이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 아니다.

표준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까(육체에 의지함으로 완전케 이르려 합니까)? (갈 3:2:3)

좋은 질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가? 일정한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께 중요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규칙들을 준수하기 위해 되풀이해서 자신을 재헌신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임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당신 생활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야 한다. 교회도 아니고, 종교적 활동도 아니며, 도덕적 생활양식도 아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당신은 거듭 거듭 자신을 재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지아가 있는 것이다. 자기 노력은 율법주의의 본질이다.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의 목표는 아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이(Another: 그리스도를 가리킴-역자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타고난 옛성품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해시키고 용서하는 보혈의 가치와,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됨의 가치를 제시하신 것 처럼, 우리가 옛성품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제시처럼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의 생명 원천에 의해 살고 있음직하게 되어 있다.²

당신 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말이 당신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이 하루하루를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당신의 생명으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생활한다면, 당신의 생활양식은 경건하게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그때 율법을 이루신 주님은,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오늘도 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왔는가? 당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가 있는가?(만일 당신이 얻은 성과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만일 승리에 이르는 수단으로 율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에 상당한 좌절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율법은 당신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신은 "괴연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실 수 있게 허락한다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투쟁도 없이 저절로 승수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환된 삶'의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나는 다시는 죄에 대해 유혹조차 받지 않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기분이었다. 실제로 한동안은 이와 같은 정서적 정상 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옛 사고유형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다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유

제가 아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락방에서 나와 평생에 걸쳐 개발된 육체의 방식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때가 된 것이었다.



Study Guide

1.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가?
율법주의는 개인의 생활 방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로마서 7장 5-6절을 읽어 보라. 율법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3. 당신은 어떠한 규칙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율법으로 채택하였는가? 로마서 7장 1-4절을 읽어 보라.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7. 승리는 Grace Walk 선물이다

4.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정할 수 있는가?

5.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말에 대해 논의해 보라.

6. 저자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비결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개혁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라.

나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승리는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그리스도인파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진실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한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대치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은 우리 존재의 핵이며, 그 영의 수준에서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의 본성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본성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진정적이고 피상적인 쾌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불안

(restlessness)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피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완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옛성품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승리의 생활로 가는 데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우리가 매일 상대해야 하는 적이라는 것이다. 앞의 장에서 우리는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별도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육체 생활의 표현은 자신의 성격 또는 정서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사역의 중요성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성경을 오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존경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원천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고통스런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기 민족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구체적 기술을 배워 왔다.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 생활양식은 이들 육적인 행동 유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육체 지향적인 생활양식의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언제나 일관성이 없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육체와 봉사

육체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여러 해 동안, 나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한 나의 평가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었다. 내가 패배했다고 느끼면, 교제에서 벗어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계속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반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느낄 때, 나는 비참했다. 점점 자기 청취감이 늘어갔다. 그러면 결국 나는 다시 주님에게 헌신하고 바쁘게 그분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울증적인 그리스도인(manic-depressive christian)이었다! 당신은 이와 같이 왜곡된 기독교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분과 가깝게 느꼈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깝게 계시지도 더 멀리 계시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늘 그분 안에 있다면,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늘 우리 안에 계신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삶이다.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육체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행동이 육체의 에너지로부터 기인했는 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바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환된 삶은 우리가 자신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자원에 의지하는 삶이다. 반면, 육체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로 존경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나 기독교 사역을 하는 것을 도와줄 의사가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친히 그것을 하기 원하신다.

메이저 이안 토마스(Major Ian Thomas)는 말했다.

육체가 기록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매스컬고 애처로워 보이는 것은 없다! 육체는 의에 대해 비뚤어진 영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육체가 정취할 수 있는 의는 자기 의이다. 자기의 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그리고 자기를 의식하는 의는 언제나 자기 칭찬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언제나 눈에 띄어야 하고, 인정받고, 의는 대상이 되고, 박수를 받아야 하는 외부 지향적인 사람을 만들어낸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육체는 자기 칭찬으로 가득 차지만, 만약 실패하면 반대로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는 내향적인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는 전문적인 상담자들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태'가 된다고 하겠다!¹¹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체의

방식이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잘못된 것'이다. 종교적인 육체는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보통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찬사를 받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봉사는 당신 자신을 흐뭇하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갈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쪽이든 당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문체를 보여 주시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삶(a life of intimacy with God)이 되어야 한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진정한 소망이 당신 안에 생겼을지 모르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감에서 기독교적 생활 규범으로 강요된 행동 유형에 순응하도록 강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당신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업적을 남겼어겠다는 기록한 야망이 마음속에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고작 당신의 죄가 사람 받은 것이라면, 회심 후에도 회심하기 이전에 당신이 기뻐던 지원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면, 당신에게는 육체를 '기독교화' 하여 경건한 방식으로 '행동' 하도록 그 육체에 가르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육체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강요하고 길을 들이려 해도, 육체는 속속

들이 썩고 또 썩었다. 비록 거드랑이에 성경을 끼고, 손에 선포한
금을 들고, 얼굴에 복음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어도 육체는 썩은
것이다!⁹

봉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좌절의 삶을 살
도록 되어 있다. 나는 개인 경험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내가 나를 사역으로 부르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에 더 빠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을 때, 그것
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봉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조만간 탈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에
너지와 노력은 불타 버리고 탈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탈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
인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서 홀리나오지 않는 기독교
봉사는 육체에 불과하다. 아무리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육체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육체와 죄들

육체를 떠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는 영적인 고
압 상태를 경험할 것이고, 어떤 때는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와 같이 느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또 다른 '영적
충전'을 제공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배터리를 충전하려는' 시도로 책도 읽어 보고, 수련회와
세미나에도 다녀 보고, 테이프도 들어 보는 등 수백 가지의
일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배터리는 내가
재충전시킨 것보다 더 빨리 방전되었다. 당신도 그런 경험

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영적 배터리'가 약할 때는, 죄
를 짓는 육체적 유형에 쉽게 넘어졌다. 죄를 지었을 때, 나
는 바로 죄책감을 느꼈고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달라고 기
도했다. 나는 자신을 충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 죄를 이기는 우리의 능
력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하면, 우리는 유혹에 대해 계속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
리의 승리 자체이시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를 들어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성경은 여기서 승
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분명하
게 말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
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이는 법세를 나타내시는 하나
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가? 항상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매일 경
험하는 승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때로 삶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35-36절). 그러나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당신은 전체적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싸움으로써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자신의 삶을 사시도록 허락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 안에서 산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전능한 발전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려 하는가?

죄가 아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

육체에 의해 패배당하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는 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음식을 알기 위해 피자 가게 가서 메뉴를 읽어 보는 것과 같다. 육체의 일에 몰두하면 육체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5-6) 필립(Philip)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번 간음에 휘말렸다.

그는 부모가 이른 바 ‘개방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부모는 종종 다른 파트너를 집에 데리고 왔다. 그러한 일들은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부모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도를 하는 상대에게만 애정 표시를 하였다.

필립의 낮은 자존감은 결혼에 대한 적절한 역할 모델의 결여와 함께, 그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그는 결국 의도를 일삼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의 아내에게도 성실하기를 원했으나, 자신이 없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호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허무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또다시 그런 생활에 빠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어둠을 둘러보아도 사랑에 유혹이 켜려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는 노력 중 하나로, 성적인 장면으로 인한 충동을 피하기 위해 TV를 아예 없애 버리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영화의 장면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아침에 출근할 때 광고판을 보는 것조차 겁이 납니다.”라고 한탄하였다. 그는 지뢰밭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유혹에 빠져들어 갑자기 신앙 전체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필립과 같은 경우는 드문 것이 아니다. 그는 원수에게 정도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필립과 같은 태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죄를 유도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님이 “동회 너희를 보호하시라 거침이 없게 하시고”(유

1:24)라고 말한다. 그의 문제는 영적으로 약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능하신 하나님의 천능한 능력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문제는 자신의 초점을 그리스도가 아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그는 실족하지 않게 지켜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신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탄의 능력에 더 큰 확신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생애 전체의 초점이 그분에게 맞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고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한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에 몰두하면 내적 갈등이 촉발되어 결국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죄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나회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육체를 극복하는 열쇠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되어 왔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 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순서이다.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뒤바꾸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깨끗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행하고자도 성공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골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이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나는 나의 영적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분의 생명 안에 안식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스위치는 꺼지고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유혹에 대한 대안이다. 그것이 바로 필립의 건을 유혹에 대한 해답이다. 그를 통해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방탕한 생활 스타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는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 기만 하면 된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도 효과적으로 처리하실 것이다.

육체는 언제나 육체일 뿐

하나님이 교환된 삶의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얼마 후, 나는 '경서적 정상'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의 육체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나의 육체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나의 육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추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볼 때에만 추해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할 때, 육체는 오히려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우리 한번 티놓고 얘기해 보자. 유혹이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 시험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는가? 그렇다. 때때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매력적으로 보이며, 나는 그 육체에 이지도 순응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나 너무 빨리 나를 정죄하려 들지 말라. 당신의 육체라고 나의 육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육체는 기독교적 성숙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그 외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않는다. 육체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인식할 때 승리를 경험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패배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진리는 이와 같이 단순하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의 독립을 주장한다. 이담과 허와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계속적인 죄의 상태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립의 태도는 결국 구체적인 죄를 낳게 한다. 죄

는 자아 안에 거하는 열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죄를 짓는다는 말은 조금도 틀린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래서 그가 땅으로 떨어졌나요?”라고 묻겠는가?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질문이 될 것이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만유인력 법칙의 일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그보다 더 큰 법칙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그가 헬글라이터를 타고 있다면, 공기역학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크므로 그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력의 법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의 법칙에 의해 압도되는 것이다.

육체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칙에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며,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비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다.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벽 주위를 돌았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고, 성벽은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대신, 자신들의 전투 계획을 선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치밀한 계획과 막강한 군대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싸움으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패배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이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 주기로 작정하셨다.

찰스 트럼블은 이렇게 말한다.

너무나 많은 진실하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는, 구원이 이중적인 선물이라는 것이다. 즉,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적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하나님과 구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안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노력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아직도 원수의 기만에 속아 자신의 노력이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데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노력은 죄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맞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진리에 대한 이해 덕분에 나는 그 싸움과 갈등을 하나의 빨간 신호로 인식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싸우면서 동시에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신의 경 험에 불과하다.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진심으로 노 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2.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는 것은 무 엇이 잘못된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가?

3.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라.

4. 로마서 8장 5-6절을 읽어 보라. 이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인 을 속박하는 죄를 극복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5.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분의 생명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았는가?

8. 가치관의 아던 Grace Walk

나의 기독교 가치관을 포기하면서부터, 나는 인생을 정말로 즐기기 시작하였다. 수년 동안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구현한다고 믿었던 원리들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그 가치관들을 용감하게 수호하는 것이 승고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우리 국가가 유대-그리스도교 윤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슬퍼했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법에 대한 발견은 나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이제 나는 어떠한 가치 체계도 기독교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것이라도 말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를 둔 삶은 신약적인 기독교의 풍자에 불과하다. 우리 삶이 가치관의 체계에 바탕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그분의 아들의 인격에 우리 삶의 바탕을 두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바이다. 가치 체계는 행위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삶의 체계에 관심이 없으시다.

146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록한 삶의 방식을 불러일으킨다.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록한 삶의 방식을 놓지 못할 것이다.

에덴동산의 두 나무

옳고 그름을 기초로 삶의 방식이 이룬다는 사상의 기원은 인류가 창조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을 즐기시고, 자신의 성품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표현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에덴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

자유의 한 가지 측면은 선택권이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나무를 에덴동산에 두셨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후손들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창 2:9)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구약을 신약의 계시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

147

8. 가치관의
아던

시킨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영생을 얻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요 10:10).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은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에게서 흘러넘친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흐름을 일으키려 하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식했다면, 선악에 대한 의문은 결코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인류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수많은 나무를 두셨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나무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금지령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점을 기억하라. 선택권 없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분을 선택하기 바라셨다. 그 선택은 영생을 주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따라서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했다. 삶 아니면 죽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

지하며 살거나 아니면 그분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주지 않고 계시다며 하와를 미혹했고, 결국 그녀는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만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렸고, 처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 삶의 모든 행위는 선과 악이라는 가치 체계로 판단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계획이 아니었다. 그분이 바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삶의 원천이며 주권자가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로 되돌아가서

자, 이제 20세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오늘날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자신들이 내린 선택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회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정의하며, 사람들의 삶은 이 기준에 바탕을 두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동산에서 세우신 그분의 설계에서 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선과 악을 지배하는 율법이 아닌 그분의 생명에서 우리의 원천을 찾기 바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의로운 삶의 방식을 낳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은 선과 악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뜻에 의해 행동하면, 우리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죄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는 말의 정확한 의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죄는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증상이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자조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점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에 관한 질문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에 휘말린다. 그리스도인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잘못인가? 다이키리(daiquiri: 럼주와 레몬과 설탕을 혼합한 술-역자 주)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 ‘건즈 앤 로지스(Guns and Roses)’와 같은 록 그룹의 음악을 들어도 되는가? 퀸트리 음악 가수 가스 부룩스(Garth Brooks)의 노래를 듣는 것은 또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 성인 영화를 보아도 되는가? 그렇다면 상스러운 언어가 나오는 부모 동반 동급 영화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의 목록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여태껏 영동한 질문만 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선한 행위도 죄이다. 나무가 선과 악의 나무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이 인간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즉시 인정한다. 로마서 8장 8절에 의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그들의 자신의 수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 11:6) 하나님은 인간적인 선함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선한 행위는 독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 열매가 이미 잘못된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다.

올바른 질문을 하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질문은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과 악을 바탕으로 행위를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행위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황금률(산상수훈 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마 7:12)이나,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한다.

최근에 나는 십계명이 인쇄된 한 계시판을 보았다. 그게 시판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십계명: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십계명은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한 도덕률의 윤곽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십계명이 미국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심판과 죽음을 선고하는 것뿐이다. 율법의 목적은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율법은 영적인 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 치유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계시판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다면 옳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 율법에 기초를 둔 가치관을 통합함으로써 한 국가에 정의의 강요하려 하는 것은 그것이 십계명일지라도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힘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붕괴되는 사회를 위한 해결책은 가치관이 아니다.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비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치관이 감지기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신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 말에 무척 놀랄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이것

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도덕적 무질서를 옹호하거나 당신이 사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가치 체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도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 삶의 방식이 선과 악의 원리 위에 세워질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해롭다.

선악에 대한 집적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만든다. 타락 이전에, 선악은 아담과 하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의 행위에 맞추어지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위되어야 했다. 행위에 초점을 두면 그들은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타락 이후에,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자신의 혈맥을 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왔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을 돌아본 적도 없었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외모와 행동, 그리고 태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다.

선악에 집중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지었다. 그리고 그 결과 나 자신이 '악'의 항목에 더 많이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죄책감만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선과 악의 잣대로 측정하지 않는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할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 선과 악의 문제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태도와 행위가 나를 통하여 표현된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의 행위는 어떠한 신성한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 행위가 빌리 그레이엄과 테레사 수녀의 그것을 섞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당신은 자기 분석에 심취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 밴스 헤브너(Vance Hevner)가 그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들은 자신이 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모두 맡은 채 병원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 사탄은 자기 반성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감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갖고 논다. 그는 이들을 기분 감사가 나 자기 반성의 전문가, 아니면 자신의 성실성을 진찰하는 데 깊이 몰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않았으며, 간중하지 않았고, 더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염려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일과 기도하는 횟수, 그리고 읽은 성경책의

페이지 수를 늘려도 마음의 위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지적 버린 성경을 더욱 채찍질하여 자신들의 짐을 그저 종이 시킬 가능성이 무척 높다.”

리처드(Richard)는 우울증 때문에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내가 병문안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29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 나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이 생겨요. 어쩌면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자신의 의심을 쏟아부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고백했을 당시 자신의 진심에 의문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올바른 말을 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하여도 불안해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스스로의 구원 경험을 조목조목 해부했을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면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걱정은 그의 모든 인간관계에까지 전염되었다. 그는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나치게 세심하게 살폈으며, 이것이 그를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리처드의 경험은 그다지 드문 것이 아니다. 강박적인 자기정찰(introspection)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결과로 영적인 좌

철감을 맛보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자이에 초점을 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부여한 시험에 통과하고 있는지 확실히 인허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침수를 매기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는가? 당신의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떼고 그리스도에게 온 정신을 집중하라! 성취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은혜에 거하는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당신의 자신의 태도와 행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그 부분을 주님에게 드리면 주님이 당신 대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당신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을 취할 책임만 있을 따름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다!

선악에 대한 집착은 거룩한 덕행 대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강조한다. 가치관은 신념 체계의 구조이며, 사람들은 바로 이 구조 위에 삶의 방식을 이룬다. 이러한 이유로 율법주의자들은 올바른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는 없다. 비도덕적인 가치관은 분명히 도덕적인 삶의 방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덕행은 올바른 가치관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행위 지향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가

치관,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관도 받아들이 수 있다. 그들은 인간적인 선으로 삶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아주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 어떤 것으로도 형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건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도덕적인 삶의 방식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방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그분이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거할 때, 그분의 거룩한 미덕이 그들의 태도와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목표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흔히 그 정도는 원한다.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의롭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미덕을 표현하실 때 일어난는 결과이다. 단지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미약한 목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데 인간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겠는가? 나의 아들 앤드류가 다섯 살이었을 때 그 아이에게 구두를 사 주려고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예복용 구두를 신어 보았다. 구두를 먼저 보아

들의 발가락과 구두 사이에 공간이 충분했다. “구두가 발에 잘 맞니?” “네, 잘 맞아요.” 앤드류가 그 구두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아들은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구두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본 아내는 이들의 발가락이 구두 앞부분을 꼭 누르고 있다고 했다.

“여보, 이 구두는 너무 작아요! 내가 같이 가서 사 주어야 하는데...”

아내는 안타까워했다.

“내가 발을 만져 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는 앤드류에게 물었다.

“구두가 딱 맞는다고 하지 않았었니?”

“제 발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신으면 괜찮아요.” 앤드류의 대답이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 ‘발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신으면’ 꽤 잘 맞는 것 같다. 율법주의자로서 나는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알맞은 사이즈를 찾아서 신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하지만 웬지 맞지 않았다.

그런데 은혜를 발견한 이후,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불편했었는지를 깨달았다. 당신이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살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당신의 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가? 이제 당신의 구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별편을 맨발로 뛰어 다녀라! 그분은 당신이 영

똥한 곳을 밟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다.

선악에 대한 집착은 생명이 아닌 율법을 강조한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한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가르침 없이는 무엇이 악인지를 결코 알지 못했으리라고 말한 바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롬 7:7)

율법이 없다면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없을 것이다. 선악의 원리와 하나님의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롬 7:8)고까지 말했다. 선악은 율법을 떠나서는 생명도, 의미도 없다.

율법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성문화된 표현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순결에 대한 외적 묘사이다. 율법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뿐,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선악에 대한 집착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는 사람은 영원히 좌절감을 맛볼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 구하는 바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 이래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을 ‘고고한’ 사람, 즉 말 그대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6장에서 논의했던 기쁜 소식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롬 7:6)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규정하는 규칙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새길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과 혼인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 혼인관계는 파기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다. 이 새로운 삶에서 당신은 새로운 남편을 섬긴다. 그분은 은혜 씨(Mr. Grace), 바로 예수님이시다!

율법 씨(Mr. Law)는 당신이 선행을 아무리 해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남편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벽했으며, 당신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였다. 그는 당신이 선을 행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악행을 하면 재빠르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은혜 씨는 완전히 다르다. 그분은 우리가 했으면

하는 모든 일을 몸소 실천하신다. 그분이 당신에게 지우시는 짐은 가볍다. 그분이 당신에게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실 때 사실은 그분이 당신을 짊어지고 가신다! 그분은 너무나 은혜로운 남편이다. 당신은 그분이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할 것이다.

수년간 나는 은혜 씨가 율법 씨와 똑같은 부류의 남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율법 씨가 아니요!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그의 신부가 아니요.”

은혜 씨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의 실수를 보시고 내가 성장하도록 삶 속에서 부드럽게 역사하시며, 결코 나를 역겨워하지 않으신다. 그분과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이다. 나는 그분과 하나이며 우리 둘 모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신부가 신랑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하여 실연음편 위를 걸어야 한다면, 그러한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 것이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선의에 근거해 자신의 행위와 태도를 평가하며 유지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 항상 규칙을 확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규칙에 개의치 않으신다. 선과 악은 그분에게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그



Study Guide

1.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 기치권을 중심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제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은 선과 악에 대한 짐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의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3. 하나님의 율법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신자들에게 강조해야 할까, 아니면 강조하지 말아야 할까?

분의 사랑을 즐기고 그 사랑을 돌려주기 바라신다! 결혼 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율법 씨는 아직도 살아 있지만, 당신은 절대로 그와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당신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씨의 인격을 예수님께 투사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이다. 나는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순수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지는 않을까?’ 하며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수천 가지의 율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새로 찾은 자유라는 단 한 가지 측면이 기록한 삶을 살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라는 점을 곧 알게 되었다.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이유이다.

9. 당신이에게 필요한 것은 Grace Walk 사람이다

4. “올법이 없다면 사람의 선악을 측정할 척도가 없다. 선악의 원리는 하나님의 올법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위의 믿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5. ‘올법 씨와 결혼한 것’과 ‘은혜 씨와 결혼한 것’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

6. 디모데전서 1장 8-11절을 읽어 보라. 하나님은 올법을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가? 하나님은 오늘날 신자들이 어떤 올법을 지키기 바라시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렌스(Lance)가 화를 내며 반문했다. 그와 그의 아내 브렌다(Brenda)는 결혼 상담을 받으러 내 목양실에 와 있었다. 15분 동안 브렌다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그녀의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 주는 데 얼마나 무심했는지 나에게 털어놓았다. 렌스는 성공적인 사업가였다. 실제로, 그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집을 떠나 있었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먼 데가 있었어요.” 브렌다의 말이었다.

“작년에 아내를 유럽에 데려갔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렌스는 이해를 구하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사 준 보석이나 우리가 함께 즐겼던 호수 딸린 집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브렌다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저는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것을 되찾고 싶어

9.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이 없었지만, 대신 당신이 있었던 말이에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는데, 저를 위한다는 당신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랜스와 그의 아내가 처한 곤경은 내가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친밀감을 즐기는 것을 가로막았던 문제를 보여 주고 있었다. 랜스는 브렌다를 위하여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남편 자신이였다. 나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그 분과의 친밀감을 전부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울려퍼지는 성곡에 기쁨을 둔 생활 방식에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옮겨가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이전에는 행위에서 성취감을 맛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 내가 은혜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즐기게 되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어요.”라는 모순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교환된 삶(exchanged life)을 수용하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을 사랑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후, 나는 그분과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긴다. 당신은 예수님의 관계를 즐기는가? 당신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가? 그분은 무엇보다도 당신과의 사람의 관계를 바라신다.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모든 신랑은 아내가 자신과의 교제에서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알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당신은 신혼부부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누길 원하시는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솔람미 여인의 교제에 관한 낭만적인 이야기이다. 이 두 사람 간의 교제는 아주 달콤하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여인의 첫마디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아 1:2)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를 얼마나 원하는지 표현한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갈망한다. 어느 날 밤 솔람미 여인은 잠자리에 누웠으나 솔로몬 왕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받을 건지 못하였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 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가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아 3:1-4)

모든 남자들이 이러한 신부를 원할 것 같지 않은가? 여인의 마음은 온통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여인의 사랑과 갈망은 그녀의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그외의 교제를 위해 어떠한 위험과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필요하다면 그를 찾기 위하여 한밤중에 거리로 나가갈 수도 있었다. 그만큼 그녀는 그를 원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마치 그분이 자신을 삼킬 수 있는 하녀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실제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신부였는데 말이다!

신부는 남편을 원한다. 그러나 사랑은 아내를 더욱 갈망한다. 애초부터 사랑의 관계를 시작한 쪽은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준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까지 음미한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쁨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아 4:9-11)

이 두 사람이 향유했던 관계를 느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어떤 이들은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는지조차 의아해할 정도다. 성경님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부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주셨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자라났다. 이 찬송은 예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훌륭한 노래이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경험했던 절대적 복종 속에서 비로소 이 찬송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종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율법주의였던 시절에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그분의 포로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신다. 아무도 냉담한 신부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신랑은 그의 신부가 자신을 열렬히 갈망하기 원하며, 단순히 ‘모든 것을 바치는 것’만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은혜를 좀더 온전히 이해하면 주 예수와의 교제는 당신 삶의 가장 강한 열망이 될 것이다. 당신은 그분과의 친밀감을 느끼기 전에 몇 가지 잘못된 신념을 처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나

타내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사용한다. 이거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한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 간의 사랑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이다. 이것은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로, 방탕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 가졌던 태도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나타낸다.

탕자는 자신이 그의 아버지에게 용납받지 않았다고 믿었

다.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연습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눅 15:18-19)

나는 이 비유가 용서에 관한 교훈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연구해 보니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 이것은 용서(forgiveness)에 관한 교훈이기보다는 용납(acceptance)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 자신이 저지른 죄된 행실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용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반항아가 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스로 너무도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하인 정도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미 그를 용서했으며 아들이 집

에 돌아오면 그를 전적으로 받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탕자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자신이 미리 준비한 말을 하려 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 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눅 15:22-23)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많이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온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sin nature)’을 용서하셨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용서’라는 주제에 대하여 설교를 마친 후 데니스(Denise)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그렇다면 심지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용서받았다는 건가요?”

“데니스, 예수님이 언제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내가 물었다.

“2천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요.” 그녀가 대답하였다.

“그 당시에 당신이 앞으로 지을 죄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용서를 출금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으로 된 계좌에 용서를 예금해 두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용서 계좌를 전부 비우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빛은 완전히 탕감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항하였을 때 우리 삶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탕자의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가? 성구에는 그것을 암시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을 따름이다. 비록 아들은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행동들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느끼도록 만든다면, 당신을 하나님과 떨어진 먼 나라에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붙잡아 둘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늘 사랑하시며 온전히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집으로 뛰어가서 그분의 품안에 안기고 싶은 열망을 마음속에서부터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백을 위한 여지가 있는가? 만약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미 그분에게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백을 위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믿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용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친밀감에 대한 벽을 쌓게 할 것이다.

탕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 탕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으며, 아버지가 자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집 안에서 하인이 될 기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탕자의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본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를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증명해 보이려 한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수없이 간구했으며, 좀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좀더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며, 좀더 열심히 증거하겠

다고 약속을 드렸다. 내가 실제로 그분의 용서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로 다시 약속을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앞도려 비굴하게 굽며 다음번에는 좀더 잘하겠다고 기도했다.

탕자가 비굴하게 굴 필요가 있었는가? 아버지가 그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는가? 이 청년은 그의 아들이었다!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도, 먼 나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었다. 아무것도 지식으로서의 그의 신분을 바꿀 수 없었다. 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탕자 몫의 유산을 이미 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어떻게 낭비할지 이미 알았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살아온 그는 아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집을 뒤로하고 먼 나라로 떠났을 때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그 돈을 탕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아들이 떠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당신을 아주 잘 알고 계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졌다. 하지만 실재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실망은 기대

에 못 미칠 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듯이 아프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놀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먼 나라에서 무엇을 할지 알면서도 그를 떠나도록 허락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렇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이 원한다면 먼 나라에 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전 6:12)”.

앞의 장에서 신자들은 더 이상 선악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신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것은 율법적인 지라도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죄가 관찮다는 것을 암시하는가? 아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만일 당신이 이제 율법주의적인 삶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차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이런 질문

을 던질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 주니까 내가 원한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책을 덮기 전에 이 문단을 끝까지 읽어 보라. 알다시피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 주기 때문에 등장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에 관하여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로마서 5장은 선악을 주관하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만한 질문으로 로마서 6장을 시작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롬 6:1) 그는 듣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임을 알았다. 순수한 은혜를 가르칠 때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듯이,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 질문에 답변한다.

그렇다. 당신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분을 이해하면 결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신분을 이해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갈망을 불러 일으킨다. 만약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자신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종으로 볼지도 모른다. 종들은 그들의 주인과 친밀하고 애정어린 관계를 즐기기 어려워 한다. 그러나 부지간에는 서로를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 의 자녀로 보느냐 아니면 그분의 종으로 보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한다. 친밀감은 자신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이런 관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신이 맺은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

사랑과 신약의 계명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가장 순수한 동기는 사랑이다. 그 밖의 어떠한 동기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규정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그리스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형성하는 데 투자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기독교를 특정한 행동 체계로 구성된 종교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키려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싶어 한다.

신약의 계명들은 신자들의 삶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신약의 계명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율법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은혜를 이해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신약의 계명을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들은 계명을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 계명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며 그를 짓누른다.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그 계명들은 부족감(sense of need)을 강제로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기 때문에 이 계명들에 복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느 날 마크(Mark)가 자신의 일기장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보이면서 자신이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적힌 페이지를 보여 주었다. 그 목록에는 매일 30분씩 기도하기, 성경 다섯 장 읽기, 매일 가족 묵상 시간을 인도하기, 매주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기, 매일 중기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조차 꾸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이러한 영역에 성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크는 자신이 승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한다고 믿는 훌륭한 계명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은혜의 관점이 아닌 율법의 관점에서 그 계명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는가? 그것은 범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결국 마크는 이 기본적인 계명들을 지킬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몹시 근심하게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다. 그는 신약의

계명들을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 마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계명들을 성공적으로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율법이 절대로 하지 않을 한마디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들은 행위를 통하여 성취감을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며, 점점 더 많은 율법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신약 계명을 보는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 당신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계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에 기초하여 그 계명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요일 5:3)

은혜의 관점은 계명을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날 기회로 생각하게 해 준다. 우리는 그 계명들에 순종하고 싶어진다. 그 계명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의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이다. 은혜로 자유로워진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로 계명들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영적 기대감으로 계명들을 바라보게 된다. 2천 년 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완성하

쳤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신약의 계명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모든 계명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승리를 달성하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계명을 승리에 이르는 길로 보지 마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승리이시다!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면, 계명은 짐이 아닌 축복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진정한 죄책감이 아닌 은혜 안에서 거하는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 14:15; 표준새번역)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나는 이 성구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러한 오해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행하도록 애쓰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성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차이점을 알겠는가? 한 가지 접근은 ‘짐’으로 해석되는데 또 다른 접근은 ‘씨름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으로 해석된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증상이다. 즉,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순종의 진정한 문제는 사랑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주님께 일관되게 순종하는 문제로

씨름을 하면, 그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답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가?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당신이 있는 방에 몸소 찾아오신다고 상상해 보라. 그분은 당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분이 돌아서서 방을 떠나려 하자, 당신이 주님을 붙잡는다.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어 볼게요. 저는 그 동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을 정말 값지게 쓰고 싶어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누군가가 이미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마 22:36-38)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큼니까?”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은

1. 누가복음 5장 11-24절을 읽어 보라. 탕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방해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2.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의 차이를 논의해 보라.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용서받지 않은 채로 남는가?

3.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었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생활 방식을 즐기려 하지 않는가?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이 당신을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막아 주는가?

4. 신약의 계명들을 율법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은혜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라.

5.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드는가? 당신 자신의 삶에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특정한 요인들을 열거해 보라.

10. 의무에서 기쁨으로 Grace Walk

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되는 여러 영역들을 잘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였다.

성경에 따라 살기

어렸을 때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 책은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당신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칠판에 적혀 있는 성경책을 받은 적이 있다. 나에게는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죄는 분명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지만, 성경 자체가 나를 죄로부터 항상 지켜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십대 소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이고 또 하나는 여자이다. 자동차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에 관한 생각은 다르다. 넘쳐나는 호르몬과 왕성한 상상력이 문제이다.

사춘기를 겪을 때, 나는 나를 유혹하는 사탄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 책의 저자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한 다음 특별히 취약한 영역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색인 카드에 쓰라고 제안했다. 그 다음 사탄이 유혹하면 그 칼(말씀)을 뽑아서 사탄의 목을 베라고 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청춘의 유혹과 관련된 성구가 적힌 카드들을 주머니에 잔뜩 쑤셔 넣고 다녔다. 그 중 한 카드는 너무나 자주 사용해서 유독 너덜너덜해졌다. 그 카드에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측면을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어떤 정해진 기독교적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실제로 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 율법주의적였을 적에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부과된 율법들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성경에서 읽은 기독교 율법 체계는 나의 책임을 요구하였다.

어쩌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정한 측면을 영적 의무로 보도록 습관화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은혜에 거하는 삶으로 향한다면, 은혜가 어떻게 의무를 특권과 기쁨의 자리로 높이는지 보게 될 것이다. 신앙적 배경에 따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도 성공적

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춘기를 겪는 소년은 여자들만 눈에 들어온다. 나의 생각이 욕망의 열차에 올라타고 폭주하는 것을 발견할 때면, 나를 제대로 끌어들이는 악령들을 쫓아 내리는 것이 그 카드를 꺼내서 큰 소리로 읽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욕망의 열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열차가 돌아야 할 코스를 원주하고 기차역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나는 인간쓰레기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성경이 왜 그 시절에 나를 도와주지 못했는지 의아해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혹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물론 그 색인 카드는 버렸다. 하지만 성경에 따라 살기로 한 나의 결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루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신봉하는 것에 불과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체계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물론 성경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사탄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성경을 인용했음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사랑과 함께 대면화될 때 죄에 대항하는 무기가 된다. 성구를 암송하는 것은 총을 장전하지만, 사랑만이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사탄에게 총을 겨누고 “땡! 땡!”이라고 입으로 외쳤다. 적이 쓰러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배워야 했다. 당신이 매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 안에 거하는 그분의 생명의 힘은 모든 유혹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 오직 자신의 의지로 유혹을 견뎌야 한다. 지존적인 노력으로 유혹에 대항하는 것은 백전백패의 일방적인 싸움일 뿐이다!

성경을 배우는 것

은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는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왜 그런가? 성과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은 흔히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대체적으로 이득이 없으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현대 교회는 지식을 얻으려고 여러 성경 세미나를 전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찼다. 기독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은 번창하고 있으며 성경에 관한 연구 교재도 넘쳐 난다. 성경에 관한 정보는 이제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처럼 많았던 시대

가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성경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사람이 그 책에서 정보를 얻도록 하는 반면에,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계시를 찾기 위하여 성경에 다가가게 해 준다.

한번은 목사들의 신화 훈련을 반대하는 교회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무지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는 많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말씀에 대한 무지가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계시가 없는 성경적 지식은 껍데기뿐인 종교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지 않아도 성경에 관한 학술적인 지식에 탁월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헬리어 동사는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성경이 연애 편지에 비유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그것은 훌륭한 비유이다. 은혜지향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예수님을 알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얼마 전에 나는 며칠 동안 진행된 남성 수련회에 참석했다. 첫째날 밤, 칫솔과 면도기가 들어 있는 케이스에 아내 펠라니가 끼워 둔 사랑의 쪽지를 발견했다. 나는 그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나의 셔츠 밑에 그녀가 넣어 둔 또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다. 다음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날이 지날수록 그 쪽지들은 점점 더 감성적이 되었

다. 드디어 수련회 마지막 날 나는 내 양복 주머니에서 아내가 숨겨 두었던 쪽지를 찾았다. 이 쪽지가 절정이었다. 그 쪽지에는 아내의 향수가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 쪽지들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작은 계시판 위에 그 쪽지들을 다 붙여 놓았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모른 척하고 나의 서재로 가서 쪽지들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 작은 계시판을 벽에 걸어 놓았다. 당신은 나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쪽지들은 훌륭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의 감정과 헌신이 아내에게로 더욱 향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 성령님도 이렇게 하신다. 그분은 영감으로 쓰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그분을 좀더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신다. 은혜는 성경을 인격화하며, 객관적인 그 책이 우리 가슴속의 주관적인 말씀(개개인에게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루 종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 댈 수 있지만,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나는 성경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항상 믿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책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의 표현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당신은 오늘 성경의 시간을 가졌는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한 이래 극적으로 변화된 나

의 삶의 또 다른 영역은 기도 생활이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일관되게 '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시간(Quiet Time)'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실제로도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해져서 잠들어 버린 적도 있었다!

올범주와는 기도를 지루한 독백으로 만들어 버린다. 반면에 은혜는 그것을 기쁨 넘치는 대화로 만든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편에 박히고 반복적이지는 않은가? 나의 기도 생활이 그렇다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도를 외우지 않는다. 단지 기도할 뿐이다.

나의 딸 에이미(Amy)가 어린이었을 때, 어느 날 밤 그녀를 재우면서 함께 '기도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침대 곁에 무릎을 꿇자 그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선하세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다. 에이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를 올려다보고 "내가 영동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렇다. 나는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조차도 그런 적이 있었다.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때와 장소에서 반복하는 것 말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파병되었던 젊은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베트

남 전쟁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다. 그렇시 나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나?' 하며 궁금해했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예화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에 박힌 생활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은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꾼다. 은혜는 매일 편에 박힌 기도와 대조되는 지속적인 기도 관계를 지극한다.

사라(Sarah)는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똑같은 순서를 따른다. 우선 남편의 빵에 입을 맞추면서 그와 인사한다. 그런 다음에 거의 비슷한 말로 남편을 칭찬한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나 그들 자신의 문제 혹은 다른 필요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그 토론은 늘 그녀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남편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남편의 동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자신을 위하여 해 주는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그가 원하는 아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가끔 마음은 다른 데 있기도 하지만 이 일상을 정확히 매일 반복한다. 이 습관을 행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 그 후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 그녀는 남편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사라는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

른 시라는 상상의 인물이다. 만일 아내가 남편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킨다면 그녀는 그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시나리오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

그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때에 똑같은 식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의 기도 생활은 네 단계 또는 다섯 단계로 구성된 기도 공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들어 있는 들어 있지 않은 시간에 이 순서에 따라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자문해 볼 것을 권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분의 신부와 정말로 갖고 싶어 하시는 대화일까?

은혜를 이해하기 전 나의 기도 생활은 내가 행한 것, 즉 내가 하나님께 말할 때 일어난 행위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의 기도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행위이지만, 이제는 행위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마음가짐(attitude)이다. 내가 그리스도 인에게 하는 매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열린 교제이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 1초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돌아다녀야 하는가? 아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순간 그분과 대화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다.

우리 아이들은 아내와 내가 말하지 않고도 대화를 나누다고 말하곤 한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고도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2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왔으며,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꽤 잘 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 눈빛만으로 충분하다. 책 한 권 분량의 말이 침묵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아내 벨라니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불편하지 않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경우만 아니면 침묵도 편하다.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나는 늘 대화를 나눌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서로 친밀해지면서 그것이 불필요해졌다. 우리는 지금도 자주 그리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건의 시간'을 위하여 하루에 30분씩을 비워 두지는 않는다. 나는 우리 둘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 대화합시다.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도 어색하고 강제적이고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나는 차라리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이거 한번 들어 봐요.”라고 외치며 방금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내용을 알려주거나, “디어 애비(Dear Abby: 미국의 유명한 인생 상담 컬럼-역자 주)를 큰 소리로 읽어 주겠다. 아내가 내게 이야기할 때도 미리 계획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즉흥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다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생명이 없는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당신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

간다면, 기도가 영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 도 하루에 수차례씩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분과 중요한 일이나 흔히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점을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다! 그분은 큰 문제를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비축해 둘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분의 힘을 고갈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다면, 그 문제가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분명 당신 삶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은혜지향적인 생활 방식에서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당신이 기독교적인 성취를 통하여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는 대신 은혜를 통하여 관계를 갖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번도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당신은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이라고 기대하는가?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 잭 테일러(Jack Taylor)는 그들이 기대하는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털리 퍼져 있는 이단적인 이론은, 하나님이 한때는 직접 말씀도 하시고 활동적이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안 하시며 움직이지도 않으신다는 관념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당신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이 사실인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적인 이론에 근접하여 살고 있음은 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론은 성경 말씀에 관한 교회법이 완성된 후 곧바로 출현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상세한 이유를 밝힌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완전무결하다. 우리는 평생을 필요한 모든 계시를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암묵적인 가설(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오늘날의 교회를 맴돌고 있다.”

내 컴퓨터에 있는 성경 용어 색인을 보면, 성경에 ‘주님께 서 가라사대’ 라는 문구가 5777번 나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문구는 143번 나온다고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이 총 720번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가? 예수께서는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 다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과 끊임없는 대화로 교제하는 것이다. 은혜는 율법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람의 귀를 열어 준다. 율법주의자였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성과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으로 대표되던 투쟁 없이도, 그분이 진정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인자'에 있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분의 생명이 매순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의 생각과 결정을 인도하신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오로지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의 태도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나오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은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분은 매순간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쉽고 민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순간마다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행위는 어떠한 신성한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대신에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이 진리를 직장 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던 짐(Jim)에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으며, 그리스도 안에 쉬고 있다면 그의 생각이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믿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마음이 참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의 대답이었다. 짐이 그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성령님이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사탄의 능력을 아는 만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깨달았다.” 이것에 관하여 토의해 보라. 성경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읽어 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당신은 강력한 기도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4.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자주 그러시는가?

5.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 방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의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6.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7.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11. 사람이 필요한 Grace Walk 사람들

내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흥분되는 영적 진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삶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만의 해 안에 거하는 삶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다. 즉, 신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한 아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면, 좀더 많은 자식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로써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본성과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인성과 신성을 지닌 아들들로 구성된 가족을 갈망하셨으며 의도하셨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마음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분의 영원한 아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참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과 그분이 교회를 즐길 수 있는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는지 보게 된다. 그리하여 성자 예수는 그(아버지)가 아버지로써의 존귀와 영광, 만족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아들들로 구성된 가족을 이루시는 것을 돕는다.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반면, 독생자는 아버지를 위하여 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삼위(성부, 성자, 성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위격도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각자 서로를 위하여 산다. 성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자가 우선권을 가질 것을 의도하신다.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주신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또는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성자를 나타내시며,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서로에게 관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서로를 섬긴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래야 한다. 내부지향적인 기독교란 있을 수 없다. 축이 텅 빈 종교는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쓰며 자신들의 모임에 초점을 둔다. 신약의 기독교는 남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쏟아 붓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

타내도록 허용하지는 궁극적인 이점은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정취감은 우리 안에 거하지는 그분의 생명의 부산물이다. 그분의 좀더 큰 목적은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 감금한 세상에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올범주의적인 종교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의 빛에 걸린 사람들을 올범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면서 매일 인식하도록 해준다. 종교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지만, 은혜는 사랑을 우선시한다. 은혜는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도록 자유를 준다. 그것은 올범이 아닌 생명의 위하여 동기가 부여된 사역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올범은 사역을 강조하지만, 은혜는 그것에 대한 영감을 붙여넣는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해하게 된 이후로, 나는 사람들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신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변화를 발견할 것이다.

2천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그분 안에서 살 때 당신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은혜 안에서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참된 해방감을 주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의 놀라움을 이

206

...
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한 이후 복음에 대한 나의 접근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은혜는 사람들을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도록 해 준다. 믿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전도에 관하여 말할 때 '전도 대상(prospect)'이라는 단어는 나의 어휘에서 사라졌다. 올범주의적였을 때 나는 사람들을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 또는 '교회 등록을 위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것은 단지 단어에 불과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단어는 사람들의 인격을 박탈한다.

나는 당신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단지 대상일 때, 복음 전도는 실용주의적일 것으로 전략한다.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 지향적인 견해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금해 하는 사람들로 보게 한다.

구단적으로 치우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올범주의적인 접근은 세속화될 수 있다. 20대 중반이였을 때, 나는 신앙고백과 세례를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했지만,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교회 정문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은 후 몇 달 안에 뒷문으로 나가 버리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는지 궁금하다.

한 젊은 목사와 나는 12주 동안 '누구의 교회가 세례를 더

207

...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주는지 경쟁하기로 했다. 우리는 진지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진지하게 시도해 본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12주 동안 나는 세상에 종말이 곧 다가올 것처럼 세례식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나는 내가 제안하는 '죄인의 기도'를 따라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례를 주었다. 우리는 마치 기록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처럼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몇몇 어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동몽한 어른은 세례를 두 번 준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들 중 몇 명에게는 동시에 세례를 주기도 하였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 시절을 회상해 보니 참 부끄럽다. 나의 경험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지 몰라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교인들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태도는 드물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우리의 대상 목록에 오를 뿐이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대상이나 교회 등록 예상 대상에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교사나 성가대원, 집사 또는 장로 후보가 되어 버린다. 은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비웃는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자원이 아닌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은혜는 복음 전도를 종교적인 일로 만들기보다는 참된 기쁨으로 만든다. 셰리(Sherie)와 나는 복음 전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나는 처음으로 주님에 관해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졌어요.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어요. 전하기는 해야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죄책감을 느꼈어요." 복음 증거에 대한 셰리의 견해가 어떤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녀가 증거하는 것을 어려워 했던 첫번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직면해야 하는 문제였다. 복음주의자들과 원리주의자들 사이에 있는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 있는 주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즉 율법은 그것이 허라고 요구하는 것의 정반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증거해야 하는 의무에 얽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자. 셰리는 하고 싶어서 증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셰리가 증거하는 것을 어려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 성과 중심의 기독교적 생활 방식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별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위한 은혜를 발전하자,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을 복음이라고 흥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동기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누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리보다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

명을 지속적으로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20세기
의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을 강조했을지는 몰라도, 신앙 시대의 교회는 그러한 개념
이 없었었다. 복음 전도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나 싸우지
않는 병사와 같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
하여 동기 부여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것
을 멈출 수가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 체포
되었을 때 그들은 공회로 끌려가서 심하게 헐박받고 예수님
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
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19-20)

사람들이 열망으로 불타고 있을 때 그 무엇도 그들을 막
을 수 없다! 은혜는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붙인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동정심에 불을 붙이며, 그리
스도인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자연스럽게 증거하도록 동기
를 부여한다. 은혜에 기반을 둔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
게 쉽게 퍼지는 예수님에 대한 흥분 그 자체이다.

**은혜는 계획이 아닌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도록 동기를 부
여한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잃어버린 자에 대한 나
의 관심의 초점은 ‘구원의 계획’을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를 시작했다. “만약 당
신이 오늘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알고 있습
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나는 성경
의 기본 교리를 설명했다. 설명을 마친 후에 나는 그리스
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시점에서, 나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불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분명
히 중요하다. 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김
다는 것을 안다. 어떠한 식으로도 복음 전도에서 말씀의 역
할을 과소평가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
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
지 않은 채 구원의 ‘계획’만을 나눌 수 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
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단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
도인이라는 지식만을 남겨 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철저
한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불리는 인지와 사랑
에 빠지게 만든다. 그것은 새 신자에게 그가 그리스도와 맺
은 관계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었다는 점을 이해시켜 준다.
새 신지는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
신하는가? 결단의 기뢰로 끝나는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그
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확신의 유일한 근거는 자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던 순간을 회고해
보는 것뿐이다. 만일 그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 알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만약 내일 아침 기억상실중에 걸린 채로 깨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덟 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여덟 살 때의 일을 회고하는 데 있지 않다. 나의 삶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계속 감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계속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은혜는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강조한다.

은혜 저항적인 복음 전도는 용서뿐만 아니라 생명도 전한다. 복음 전도에 관한 대부분의 현대적 접근 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된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다. 용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터 주지만, 오늘날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용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베푸신다. 하지만 은혜는 용서를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다.

몇 년 전에 나는 자신의 남편인 짐 엘리엇(Jim Elliot) 선교사가 아우카 인디언들(Auca Indians)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된 일에 대하여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Elizabeth Elliot)의 회고록을 읽었다.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으로 그 미개한 인디언들에게 신망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남편을 살해한 사람들을 향한 엘리자베스의 용서는 잔학 행위에 대한 기적적인 반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잔혹 행위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자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나는 남편인 짐 엘리엇을 살해한 그 남자를 이별해 주는 그녀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해 준다. 그러나 은혜는 자비를 훨씬 초월한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낌없는 자애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격노를 그리

스도가 대신 떠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결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자비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우며, 유쾌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용서의 기회만을 제시하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못 미친다. 용서는 거룩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주요 목표에 필요하지만 부차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은혜에 기반을 둔 복음 전도는 단지 용서라는 목적을 위한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구속은 우리 비전에 아주 커다란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위대하며 경이로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구원받으려고 창조된 것처럼 구속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인류의 타락은 그 목적 신상에서 아예로 멀어지는 비극적인 추락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축복된 회복이다. 하지만 구원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아담이 결코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끝은 선으로 표시되는 목적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회복 역사(recovery work) 때문에 그들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는 역사(realizing work)를 소홀히 여기기 쉽다. 우리는 이 두 사역을 분명히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인간의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에 더 민감했었다. 우리의 현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해 준다. ①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역사는 파괴되었다. 그리고 죄의 굴레와 타락의 효과로부터 구속과 해방이

주어졌다. ②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²²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은혜를 점점 더 이해하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그분의 생명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점차 생기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너무나 많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평범한 삶을 인내하고 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시며 자신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도행전에 묘사된 교회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진리를 강조했으며, 순식간에 온 세상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현대 복음은 계속해서 죄 사함을 외쳐 왔지만 구원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측면을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 사이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은혜와 교회

나의 목양실 벽에는 매혹적인 그림 한 장이 걸려 있다. 그것은 다양한 색상이 여러 어두운 선들에 혼합된 컴퓨터 합성 그림이다. 아주 커다란 타이어를 여러 가지 색상의 페인

트에 담겼다. 캔버스 위에 골렸을 때 나는 문양과 흡사하다. 평범한 관찰자들이 식별해내지 못할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지만,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림 하단에는 “자연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그림의 매력적인 점은 색과 선 안에 있는 3차원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화랑에서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그것에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화랑 직원은 그 그림을 뒀고 있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숨겨진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해서 초점 거리를 두 배로 늘리면 3차원 형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점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 중앙에 날개를 펼친 커다란 독수리가 있었다. 그 독수리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톱에 움켜쥐고 있었으며, 두 마리의 새끼가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머리를 위로 내밀고 있는 동지 위로 허강하고 있었다. 일단 그림이 눈에 들어오면 그 형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나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 주었다. 그들 모두 한참 동안 쳐다보았지만 대부분 독수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 동안 당혹스러워하며 쳐다보다가 독수리가 뚜렷하게 보이면 깜짝 놀라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다.

이 그림은 은혜가 교회에 대한 나의 견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 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살았다. 나는 이 건물의 분명한 색상과 선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은혜는 이 2차원적인 그림을 3차원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도 교회의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눈에 어느 정도 보이기는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게 된 후 눈앞에 펼쳐진 거룩한 3차원 예술 작품에 비하면 그곳의 아름다움은 밋밋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진열장이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이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트로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은혜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4-7)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베푸셨으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분은 자신의 성품을 토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깃든 은혜를 베푸기로 선택하셨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는 달리, 성파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받아들이는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다.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다 덮어 주며 받아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혜는 행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허용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뜯어고치려 한다. 그러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들의 개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율법주의자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준다. 그러나 은혜가 넘쳐흐르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당신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실족한 그리스도인은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자신이 몽개질 정도로 강한 자책의 압박감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다. 신지들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정죄할 수 있는가?

릭(Rick)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고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분노에 가까운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

가 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공허하고 쓸쓸해요.”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며 그가 느끼는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 릭은 기분이 약간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진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릭,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요. 사실, 당신은 항상 그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 다음 몇 분 동안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지 확신시켜 주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신다고 말하지만, 내 속 사정을 몰리요.” 릭이 대답했다. 그러자 문제의 핵심이 밝혀졌다. 그는 사업차 출장을 갔을 때 자신이 묵은 호텔방에서 나오는 포르노 영화에 사로잡혔었다고 고백했다.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릭, 하나님은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한다고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당신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불안해 하는 이유는 당신의 신

분과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몇 주 동안 락과 만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자 그는 자신의 습관적인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목사님, 지난주 출장 중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몇 차례 겪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포르노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가 강렬했어요. 욕구를 참지 못해서 포르노 영화를 잠깐 틀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고 텔레비전을 켜어요. 나는 이제 포르노 영화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락의 자유는 정죄를 통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죄고백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 의한 동기 부여 때문이었다. 정죄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며 우리를 짓밟는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범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것은 우리의 애정과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린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혔던 죄를 버리게 된다.

교회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가정이다. 교회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필요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은혜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똑같은 사랑과 인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

나의 목양실에 걸쳐 있는 3차원적인 그림은 초점 거리를 두 배로 늘리지 뚜렷하게 보였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새로운 교회관을 얻는 데 적용되었다. 수년 동안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교회를 바라보았다. 내가 속한 교회의 전통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내가 참여한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숲 전체를 보기 위하여 전통이라는 나무에서 한 발짝 물러날 필요도 있다.

올범주의는 배타적인 태도가 특징이다.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거하는 생활은 교회에 대한 나의 인식의 폭을 넓혀 주었다. 어떤 기독교 단체도 모든 진리에 대해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 단체는 진리의 한 부분을 좀더 잘 이해하는 반면에 다른 단체는 영적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현대 교회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모든 기독교 교회가 옳든지 아니면 모두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교회나 교파도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여러 교파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불필요한 교리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실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과 의식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나는 교리를 교회 창문 밖으로 내던지는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가정은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구조 내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 형제가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해서 그를 잘못되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은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서 다양성이 허용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비유로 사용한다.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2-13)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교회는 한몸이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몸이 되었다. 우리는 지체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머리되신 예수님이 각 지체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율법주의는 몸의 모든 부위
가 입이나 발이나 손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

나님의 말씀은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
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로 이제 지체
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전 12:18-20)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의도하신 질서정연한 다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체정신인 사람은 그의 몸 전체가 한 가
지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몸 전체가
눈이 되거나 눈이 몸 전체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주님은 귀와 코뿐만 아니라 눈, 손과 같은 몸의 다양성을
명하셨다. 이것은 일체도 아니며, 더군다나 단일 기관의 독점은
분명히 아니다.”¹¹

교회를 은혜지향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교회는 실제로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 머리의 지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몸의 각 지체는 몸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지만,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단결시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하여 하나이다. 겉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구별되지만 우
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이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Study Guide

1. 율법주의자와 은혜 인에 거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에 대하여 갖는 서로 다른 접근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 당신의 삶은 어떤 접근에 가까운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복음 전도를 세상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구원의 계획'을 나누는 것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

3. 은혜와 자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4. 만일 복음 전도가 구원으로 얻은 새 생명을 강조하지 않고 죄 사함 받는 것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부족할까? 이렇게 한다면 새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5.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특정한 방식을 예로 들어 보라.

6. 하나님의 교회는 가지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교파를 굳이 구별할 이유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13 절을 읽어 보라. 서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의존하는가?

12. 은혜 안에서 새롭히시기 Grace Walk 은혜를

은혜로 충만한 삶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진리와, 진리가 나의 삶에 준 영향을 분리시킬 수 없었기에 개인적인 실재를 들어가며 11장에 이르러까지 진솔하게 소개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비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사물을 단지 예전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라는 진리를 이해하게 된 것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성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내가 논의한 진리들은 내가 믿는 바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나는 교환된 삶(exchanged life)에 대하여 '우리-그들' 식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따금씩 만나곤 한다. 그

226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은혜의 본질은 은혜 안에 생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생명이시라는 깨달음은 어떤 부차적인 은혜의 사역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2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에 더 이상 언거나 바랄 것이 없다!

플라톤의 『국가론』(The Republic)에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들려주는 '동굴의 비유' 이야기가 있다. 그는 다양한 수준의 지식과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했다.

또한 이 비유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당신의 삶에도 적용되는지 보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지하 깊은 곳에 햇빛으로 통하는 긴 통로가 있는 동굴을 상상해 보라. 이 동굴 안에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죄수였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슬로 바닥에 묶여 있으며, 그들의 머리는 앞에 있는 동굴 벽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다. 줄지어 있는 죄수들의 뒤에는 불이 타고 있으며,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길이 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짐을 들고 이 길을 따라 걸어다닌다. 죄수들은 그들 뒤의 불빛에 의하여 동굴 벽에 비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볼 것이다. 그

227

12. 은혜 안에서
생활하기

리고 동굴 벽이 소리를 반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죄수들은 그 그림자로부터 오는 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 죄수들은 그들의 머리를 들릴 수 없으므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림자밖에 없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불과 길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실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죄수들 중 한 명을 풀어 주고, 그 사람을 뒤돌아보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그에게 매우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움직이지 않던 몸을 움직이면 통증이 올 것이며,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실 것이다. 지금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그림자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알려 주면 그는 믿지 못할 것이며, 다시 그가 이해하는 그림자가 비추이는 벽을 향하여 앉고 싶어 할 것이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긴 터널을 지나 그를 햇빛이 비추이는 바깥 세상으로 끌어낸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그에게 더욱 무섭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땅 위로 올라오면 그는 햇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그 햇빛에 익숙해질 그를 상상해 보자. 처음에 그는 밤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햇빛에 의하여 생기는 그림자와 물음표이 속에 비치는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낮에는 마침내 나무와 산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동굴 속에 비추이는 그림자가 아닌 이것들이 실제 사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보는 데 익숙해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비유 속에서 동굴은 준거 기준을 상징한다. 나는 율법주의의 동굴 안에서 2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안정감을 가졌던 것들(목회 지역의 기시적 결과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들이 실제로는 빛으로부터 나를 차단했던 시슬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어 그분의 은혜의 빛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나의 눈은 아직도 은혜의 눈부신 영광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나는 틀에 박힌 종교적 행위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다. 생명의 본질은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안에 있는 것이다!

일단 사람이 동굴에서 해방되면 그는 다시는 그림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탐구해야 할 은혜의 세계는 광활하다. 허무하루가 흥미진진한 모험이다. 소크라테스는 죄수를 다시 동굴로 데려온다면 어두움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림자를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동료 죄수들은 그의 경험이 그를 망가뜨려 놓았다고 말할 것이며, 빛으로 나간 그를 바보 취급할 것이다.¹²

율법주의의 동굴을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새로 찾은 자유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비해 각오를 단단히 해 두어야. 율법주의는 은혜와 평화롭게 공존한 적이 없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은, 행위는 실물이 아니며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에 격분할 것이다. 그런 지적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당신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빛 가운데 생활

하며 당신의 믿음을 즐겨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자유를 불쾌하게 여기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누리는 기쁨을 보고 동굴에서부터 빛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이시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요 1:17). 당신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몇 페이지로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 하나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목양될 바닥에 앉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그날 밤 하나님님이 들려주신 바로 그 말씀이다. 그날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그분을 좀더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순간마다 일어나는 감정의 열망이 아니고, 그분을 알고 싶은 인지적인 자각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직후에 올랐던 그 정상에 언젠가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때로 좌절과 실망, 혼란, 죄 그리고 의문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기도 했다.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으며, 믿음이 최고조에 올랐던 때와 반대로 육체가 그랬던 때도 모두 경험하였다. 그런데도 그분을 점점 더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근본적인 열망은

230
...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 가는 데 평생이 걸릴 것이다. 현재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는 친밀도에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마치 무한한 바다의 물 한 방울과도 같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성경적인 교육만으로 얻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님이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을 좀더 이해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기로 작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가까이 드러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일러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우리 안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더 크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은혜를 깨달을 때 얻게 되는 이점 중 하나는, 측정 가능한 만큼 무엇을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규율로부터의 자유이다. 물론 생산성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데는 잘 못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생산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하는 거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지라나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231
...
12. 은혜 안에서
생활하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 없는 가지는 생명이 없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바로 가지의 생명이다. 가지에 열린 열매는 포도나무를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결실이다. 씨앗이 있는 열매와 씨앗이 없는 열매는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 어떤 포도도 다른 포도보다 더 좋은 향기를 내는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자랑하며 자신의 색깔을 뽐내지는 않는다. 어떤 포도송이도 포도가 몇 개 달려 있는지 다른 송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어떤 포도송이도 자신이 다른 포도송이들보다 포도나무에 더 거깝다고 우기지 않는다.

갈수록 말이 우스꽝스러워지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적이 생선해 내려는 데 집착한다. 어떤 교회들은 평생 거대한 태풍과 같은 부흥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회오리바람에 만족하기로 했다.

민약 당신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미국 종교계의 현대 사상이라는 거센 파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대 사상은 “잘못된 것일지라도 무언가를 하라!”고 말한다. 폭동을 활동으로 오행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 “내 안에 거하라!”고 외치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경험하고 싶은 진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 안에서 거하는 평안한 안식을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우리 삶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빨리 자라고 싶다

고 투덜대며 불평한다고 해서 포도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인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행위는 그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길 을 제시하고 대비시키며,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알맞은 때와 자비를 기다리도록 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은혜의 삶이 지닌 특성은,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고 싶은 때에 항상 이루실 것이라는 주권자이신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일을 진전시키려 할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음지도 모른다.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과 불기분의 관계를 가진다. 포도나무에 거하는 포도는 나무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채 기독교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사람의 사역에 이르는 공허한 종교 의식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보다 더 강한 힘이나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요점을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도덕적 종교에 불과하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도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미약한 시도일 뿐이다. 참된 기독교는 모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고 기독교를 모방할 수도 있는가? 물론이다.

우리 자신의 수단, 능력, 지식 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모든 노력은 육체로부터 온 것이다. 육체는 참된 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인식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 중단되고 우리는 육체적인 수단을 좇아 살아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인식을 취할 때 그

234

...
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의 봉사 방법이다. 이 외의 것은 아무리 성공적이고 영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허한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부로서,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매일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우리의 행위와 태도를 지나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삶은 시험이 아니라 인식체이다. 시험은 이미 주어졌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

이제는 이 사실을 축하할 때이다! 더 이상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목록의 지배 아래 살 필요가 없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밀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렁이만큼 깊은 영력의 주름살이 그들의 얼굴을 가득 덮고 있다. 얼굴을 환하게 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의 질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릴 것이다.

감정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영적으로 일어설지 마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하겠다. 우리는 그리

235

...
생할하기
12. 은혜 안에서

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자연스럽게 창성적으로 나타내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자포자기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날 밤,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대로 나의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방법은 없다고 느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접어 들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쓴 진리들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가져다줄 이론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 자신의 삶에서 입증된 실제적인 진리이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자(Person)이시다.

나 같은 일 중독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들어설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은 단지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당신도 이미 이 책을 읽었으므로 그분의 생명을 최대한 경험하고 싶으리라 믿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나는 그날 밤에 주님에게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가? 주님은 단지 우리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약속이나 선한 의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봉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그분의 품에 안겨 안식할 때 다른 일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는가! 그것은 수동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

만 하면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는, 평안한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며, 이 삶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Study Guide

1. 당신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당신 자신의 어떤 점을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의 동굴에 얽어매는 것은 무엇인가?

2. 성경 교육과 기록한 계시 사이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라. 계시가 없는 교육의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3.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어 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4.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5.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하여 논의해 보라.

6.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바라시는가?

1. 비침찬 그리스도인

- 1) Charles G. Trumbull, *Victory in Christ*(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69), 18-19.
- 2) Webster's Ninth Collegiate Dictionary(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Inc., 1983), 678.

2. 새벽이 오기 전의 임혹

- 1) Watchman Nee, *The Release of the Spirit*(Indianapolis: Sure Foundation Publishers, 1965), 10-11.
- 2) 피터 로드는 폴로리다 주 티투스빌에 있는 파크에비뉴침례교회(Park Avenue Baptist Church)의 목사이다. 그는 또한 작가이며 교회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미국 전역을 누비며 사역하고 있다.

3. 완전히 새로운 나

- 1) Neil T. Anderson, *Victory Over the Darkness*(Ventura, CA: Regal Book, 1990), 43-44.
- 2) Bob George, *Classic Christianity*(Bugene, OR: Harvest House, 1989), 77-78.
- 3) *Ibid*.

4. 죽은 옛사람

- 1) Webster's Ninth Collegiate Dictionary(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Inc., 1983), 667.
- 2) Bill Gillham, *Lifetime Guarantee*(Bugene, OR: Harvest House, 1987), 90.
- 3) D. Martyn Lloyd-Jones, *Romans: The New Mark*(Grand Rapids: Zondervan, 1972), 65.
- 4) Charles Stanley, "The Sufficiency of Christ," a message preached at the First Baptist Church of Atlanta.
- 5) Bill Gillham, *Lifetime Guarantee*(Bugene, OR: Harvest House, 1987), 90.

5. 그분의 생명 경험하기

- 1) GMT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들과 그 의미들의 다양한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경험하며, 성숙하도록 도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주님,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단체이다.
- 2) "평생 보증(Lifetime Guarantee)에서 빌 길함은 육신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개발되는지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신도 있게 연구한다. 이 책은 이 주제에 관한 최고의 작품이다.

3) 이 질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해해야 할 점은 종교적인 의식이 사람을 지켜주는 의무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점이다.

6. 울림으로부터의 자유

- 1) Watchman Nee, *The Normal Christian Life*(Wheaton, IL: Tyndale House, 1956), 155-156.
- 2) DeVerne F. Fromke, *The Ultimate Intention*(Indianapolis: Sure Foundation, 1963), 83-84.

7. 승리는 선물이다

- 1) Major Ian Thomas, *The Saving Life of Christ*(Grand Rapids: Zondervan, 1961), 85.
- 2) Major Ian Thomas, *The Mystery of Godliness*(Grand Rapids: Zondervan, 1964), 258-259.
- 3) Charles G. Trumbull, *Victory in Christ*(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69), 47-49.

8. 기차편의 약탈

- 1) Vance Havner, *Pleasant Path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36.

10. 의무에서 기쁨으로

- 1) Jack Taylor, *The Word of God with Power*(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17-18.

11.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

- 1) DeVerne F. Fromke, *The Ultimate Intention*(Indianapolis: Sure Foundation, 1963), 55-56.
- 2) *Ibid*: 72-73. Quoting Watchman Nee.
- 3) Watchman Nee, *What Shall This Man Do?*(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61), 100.

12. 은혜 안에서 생활하기

- 1) Plato's *The Republic*(Lincoln, NE: Cliff's Notes, Inc., 1963), 52-53.
- 2) *Ibid*: 33.
- 3) Andrew Murray, *Waiting on God*(Chicago: Moody Press, 1978), 60.

참고문헌

- Anderson, Neil. *Victory Over the Darkness*. Regal Books, 1990.
- Cliff's Notes. *Plato's The Republic*. Cliff's Notes, Inc., 1963.
- Fromke, DeVen F. *The Ultimate Intention*. Sure Foundation, 1963.
- George, Bob. *Classic Christianity*. Harvest House Publishers, 1989.
- George, Bob. *Growing in Grace*. Harvest House Publishers, 1991.
- Gillham, Bill. *Lifetime Guarantee*. Harvest House Publishers, 1987.
- Lloyd-Jones, D. Martyn. *Romans, The New M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3.
- Murray, Andrew. *Waiting on God*. Moody Press, 1978.
- Nee, Watchman. *The Normal Christian Life*. Tyndale House Publishers, 1977.
- Nee, Watchman. *The Release of the Spirit*. Sure Foundation, 1965.
- Nee, Watchman. *What Shall This Man Do?*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61.
- Taylor, Jack. *The Word of God with Power*.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 Thomas, Ian. *The Saving Life of Christ*.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1.
- Thomas, Ian. *The Mystery of Godlines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4.
- Trumbull, Charles. *Victory in Christ*.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59.

“우리는 책에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담는다”

에델카무니케이션의 책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언어

게리 셰프먼 저음 / 미영혜 옮김 / 신국판 / 11,000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과연 신비로운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각 개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존중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신다. 저자 게리 셰프먼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

이원 배미니스 저음 / 최광수 · 이성욱 옮김 / 신국판행 / 10,000원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하게 느껴진다 해도 이걸 하나님은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끊임없이 역동하는 삶을 위한 매력적인 신앙에 동참하도록 신선한 동기를 제공한다.

십자가, 12시간 전

존 웨이더 저음 / 이영민 옮김 / 신국판 / 9,000원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처참함에 집중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고통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참혹한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는 흥분과 눈물을 가두고 보다 차분하게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